

碩士學位論文

상하이 푸동경제특구의 개발벤처마킹을
통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丁海梅

2010年 2月

The way of Development of cheju's international
free city Refer Development Benchmarking of
Shanghai Pudong

指導教授 金 泰 保

丁 海 梅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 年 2月

丁 海 梅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The way of Development of cheju's international
free city Refer Development Benchmarking of
Shanghai Pudong

Hai-meì Ding
(Supervised by professor Tae-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2010 . 2 .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3
제2장 개방거점의 개념과 이론	4
제1절 개방거점의 개념과 특징	4
1. 개방거점의 개념	4
2. 개방거점의 특징	6
제2절 개방거점의 유형과 사례	8
1. 개방거점의 유형	8
2. 개방거점의 사례	10
제3절 개방거점의 기능과 기대효과	15
1. 개방거점의 기능	15
2. 개방거점의 기대효과	16
제3장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국제비교분석	18
제1절 푸동특구 정책 및 그 시사점	18
1. 개관	18
2. 입법·제도	26
3. 투자유인제도	37
4. 계획	44
5. 성과	48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과 과제	55
1. 개관	55
2. 입법·제도	63
3. 투자유인제도	68
4. 계획	74
5. 성과	82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 정책의 비교	84
1. 전체개발절차의 상호비교	84
2. 추진전략과 개발목표의 비교	85
3. 구체방안비교	86
4.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비교	96
제4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방안	99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	99
1.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의 근거마련	99
2. 인프라 확충	100
3. 기업의 요구(needs)에 맞는 지원책 마련	101
4. 지식 확산을 위한 외부우수 이력 유인책 마련	102
5.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 발굴	103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전략	105
1.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직 마련	105
2. SOC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105
3. 기업유치전략의 변화	106
4. 인력유입정책의 마련	107
5.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08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1

표 목 차

<표 II-1> 개방거점의 명칭	5
<표 II-2> 개방거점의 유형과 유형	8
<표 II-3> 아일랜드의 경제발전단계	10
<표 II-4>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4
<표 III-1> 지도방침	21
<표 III-2> 푸동의 개발구별 유치산업	22
<표 III-3> 개발초기단계 상하이 지방정부의 푸동특구개발전략	24
<표 III-4> 푸동특구 3단계 개발계획	26
<표 III-5> 중국 외자유치정책 변화 및 투자패턴 추세	28
<표 III-6>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혜택 정책	36
<표 III-7> 기업소득세표	39
<표 III-8> 심사정책	40
<표 III-9> 행정정책	40
<표 III-10> 관세정책	42
<표 III-11> 금융 허브의 목표와 임무	46
<표 III-12> 물류 허브의 목표와 임무	47
<표 III-13> 푸동특구 외자유치 현황	50
<표 III-14> 상하이시 2007년 무역 및 외자 현황	50
<표 III-15> 푸동특구의 주요 경제 지표	54
<표 III-16> 추진과정	57
<표 III-17> 국제자유도시 출범시의 목표(2004)	58
<표 III-18> 7개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59
<표 III-19> 제주국제자유도시 단계별 주요목표와 프로젝트	61

<표 III-20>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62
<표 III-21> 5대 전략 프로젝트	62
<표 III-22> 주요 업종 및 지정기준	65
<표 III-23> 제주 투자진흥구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세제	70
<표 III-24> 조세감면 내용	71
<표 III-25> 예대 주거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간의 세제혜택에 비교 ..	71
<표 III-26> 지원내용	72
<표 III-27> 재정지원	73
<표 III-28> 7개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76
<표 III-29>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77
<표 III-30> 5대 전략 프로젝트	79
<표 III-31>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장	83
<표 III-3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의 발전 전략과 우대조치	85
<표 III-3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의 단계별 발전목표 ..	86
<표 III-34> 푸동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인센티브 정책 비교	91
<표 III-35> 푸동특구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에 대한 정책	92
<표 III-36> 상하이 푸동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재양성제도 비교	96
<표 III-37> 지방정부의 대외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그림 목 차

<그림 Ⅲ-1>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계획 74
<그림 Ⅲ-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절차 75
<그림 Ⅲ-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절차와 푸동특구 추진절차 비교 84



ABSTRACT

As part of the strategies to challenge such environmental changes as the huge flow of globalization and paradigm transition toward localizati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s authorized on 2002 to promote transportation service in new ports of Jeju Island and develop a business of the northeast asian nexus. Although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een 7 years since the basic plan was set, there have apparent limitations with the progress due to the poor institutional foundation, government support and talent introduction policy.

From the pl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we can see Cit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s in start stage and much similar with China Shanghai Pudong special economic zones.

We need to comprehend the development benchmarking of Pudong in Shanghai. Because Pudong is a competitive relation to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t the same time a similar case of development. But there is all the difference among population, size, urbanization and scale of rear market in Pudong. Therefore the way of development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to be led from the developmental experience of Pudong. and we need to consider that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Pudong in a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is study sought to overcome problems abou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and to find ways to develop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olicies.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development process of Shanghai Pudong reconsiderati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for succeeding Free International City promotion what kind of strategy have to plan that is the goal of this study.

Furthermore, it has weaker competitive edge in terms of taxes, prices, and accessibility compared to other major cities of East Asia. Its comparative advantage doesn't match that of the free economic zones, corporate cities, and special districts of Korea.

In particular, the project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close relations with the appointment of 'Free Economic Zones' planned for major cities of Korea in respect to the government's plan to establish the business core of Northeast Asia in the nation.

The object of this is to consider how to use the way of development of Pudong. And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 First of all, government has to prepare strong support to develop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econd, the social overhead capital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to be expanded. As the northeastern Asian economic bloc and a tourist spo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needs to build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ation network. Third, attraction of investment for expansion needs various incentive policies. Fourth, talent introduction polic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to be improved. Because labor of high quality is the required condition of development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초반의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의 경제개혁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연평균 9.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농촌과 중서부 내륙을 포함한 전국적인 수치이며, 특히 동부 해안지역의 경우 연간 15%내외의 미증유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밑바탕에는 개혁개방정책의 핵심 실천 사업인 경제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 중국 전체의 0.5%에 불과한 면적, 전체 인구의 1.75%에 불과한 256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경제특구지만, 국민수입은 중국전체의 2.5%이며, 특히 그 증가율은 항상 전국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입 비중은 전국의 22.3%, 외자 유치도 전국의 17.2%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특구는 산업구조 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숙련하여 부단히 경제운행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여러 방식을 통하여 내륙경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 새로운 세기의 기회와 도전을 적극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중국 경제성장 중심지로 자리 잡은 상하이 는 경제발전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다. 과거에는 외국에 의한 비자발적인 경제성장과정을 거쳤지만, 현재에는 국가지도하의 자발적인 '푸동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본 연구는 상하이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첫째, 상하이 경제발전의 유래 및 형성, 그리고 시스템을 먼저 파악하고, 둘째, 상하이의 성공한 경제개발 정책을 분석하고, 셋째 제주도 경제의 과거와 현재 현황을 분석하며, 넷째 상하이와 제주도의 경제를

비교하고, 다섯째, 이를 통해서 제주도경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여건과 폭의 차이를 가늠하는 바탕에서 제주자유도시 개발에 있어 상하이 개발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발전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발전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국사례와 비교 검토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욱(2009)은 제주도 전 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제주지역 투자기업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역의 선택적 이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세제감면 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보다 혜택이 작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행정편의중심에서 투자자 편의중심으로 전환된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진흥클러스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토지확보 및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등의 제도개선과 제주전 지역을 투자진흥지구 관리 대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남형(2006)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 발휘,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외자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벤치마킹할 만한 구체적인 외국제도들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 외국사례 검토가 있다 하더라도 GDP·법인세 면세율 등 일부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했을 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하이 푸동특구를 비교사례로 선정하되 그 전략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화하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상하이 푸동특구에서 시행된 여러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분석의 범위에 있어서 첫째, 공간적 범위로 현재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상하이 푸동특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책과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로는 2000년 이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조망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79년대 이후부터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의 역사적인 경제발전을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방거점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봄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의 발전전략들을 경제 정책의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 및 성공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상하이 푸동특구의 발전전략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 개방거점의 개념과 이론

제1절 개방거점의 개념과 특징

1. 개방거점의 개념

개방거점이론은 지역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국제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Heckscher-Ohlin의 교역이론, 신성장이론, Perroux에 의해 창안되고 Hirschman, Myrdal, Friedmann에 의해 발전된 성장거점이론 등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¹⁾ 개방거점전략은 지역경제학에서 국내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자본, 기술, 무역 등의 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전략이다.

2001년 한국국토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개방화시대의 신개방 국토거점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개방거점의 개념을 “국내의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단의 정책 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및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이라 정의하였다.²⁾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개방거점은 일반적으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국내의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정책 수단을 통하여 제도나 규제를 완화하고, 외자 유치 인센티브나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적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즉, 개방거점은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국내 경제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를 부여하여, 그리고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나 공업단지이다.

19세기 이후부터 개방거점에 대하여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부르다가 현재 세

1) 김태보,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제주경제의 대응과제”, 「사회발전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119, 2004.

2) 삼성연제연구소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경제특구”, p. 64, 2004

계 각국은 또 다른 명칭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미국은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멕시코는 미낄라도라(Maquiladora), 한국은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싱가포르, 필리핀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중국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고 부른다. (<표 II-1> 참조)

<표 II-1> 개방거점의 명칭

국가	명칭
전통적 용어(19C 이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미국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멕시코	미낄라도라(Maquiladora)
한국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싱가포르, 필리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중국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출처: 이환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P.4

개방거점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구역을 의미한다³⁾ 처음 경제거점은 국가 전체의 개방화를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특정 지역부터 개방화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차츰 국내 기타지역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⁴⁾. 중국 푸둥특구는 바로 이런 형식으로 개방화를 시작했다.

개방거점은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단화시키고,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병원·의료시설 등의 진입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특별법이나 규제에 의하여 외국투

3)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 2002.

4) 박진석, 「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 2007.

자기업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의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특별행정기관 한 곳에서 해결하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⁵⁾.

또한 개방거점은 단순한 외자유치 수단이 아니며,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간적 범위나 입주기업의 국적보다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양질의 경영자원과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다⁶⁾

2. 특징

성공적인 개방거점의 일반적인 특징은 대략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집적을 통한 클러스트 및 대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둘째, 생산, R&D, 금융 중심의 세계적 복합거점이 되며, 셋째, 지식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산업 고도화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고, 넷째,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특별행정자치지구 등이다⁷⁾. 그리고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국제물류체계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경제학에 따르면 개방거점은 경제발전전략으로 구분할 경우 세계경제에 완전히 열려있는 개방경제지대, 첨단·고도기술화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산업이 입지하는 지역, 거점개발효과 및 지역간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산업이 입지하는 지역 등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3가지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보자.

첫째, 개방거점은 외국기업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세계경제에 완전히 열려있는 개방경제지대라고도 한다. 개방거점은 국내 기타지역과 차별되는 특별지역으로 구별되고 세계경제와 자유롭게 교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경제규제 완화 및 자유화를 이루는 개방경제체제를 그 기반으로 한다. 개방거점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5) 금정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복사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6) 박정진, "외국이 투자유치전략-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pp.6-7. 2007.

7) 이상식·박기성,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pp. 10-11, 2003.

가 제공되고 규제가 최소화되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된다. 심지어 최고의 여건인 無규제, 無세금, 無위험 등이 개방거점에서 나왔다.

둘째, 개방거점은 주요 외부 힘을 이용하여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거나 외자 유치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집적지이다. 여기에는 해외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지식확산, 전시효과 창출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별산업지역이다.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와 발전 기술이 높다.

셋째, 개방거점은 以点帶面⁸⁾의 특성이 있다. 즉, 외부 자본이나 선진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 거점개발효과 및 지역간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이다. 개방거점은 주변 배후지역에 대한 분산효과와 승수효과에 의하여 유희노동력을 흡입하고, 산업간 연계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산업복합체를 이룬다. 그 특징은 핵심적인 기간산업이 주축이 되어 주위산업체와 함께 정착화이익과 도시화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8) 以点帶面: 적은 것으로 전체를 이끌다.

제2절 개방거점의 유형과 사례

1. 유형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개방거점의 유형과 설치목적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설치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유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즉, 국제교역 중심형, 생산 중심형, 생산·교역복합형, 지식 창조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

<표Ⅱ-2> 개방거점의 유형과 유형

구분	내용	대표지역
생산중심형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습득	아일랜드
국제교역형	무역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활동에 편의를 도모	네덜란드
생산교역복합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 생산, 금융 등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	푸동특구
지식창조형	물류, 생산기능을 특화, 역외금융센터, 정보처리지구 등	싱가폴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3. 8)

다음에 이 4가지 개방거점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생산중심형 개방거점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즉, 생산중심형 개방거점은 주로 저렴한 생산비용 및 세제상 혜택을 이용하며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생산중심형 개방거점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수출의 활성화와 외자 도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자본형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일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생산중심형 개방거점은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등 형태가 있다.

이 지역안에서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관세로 수량에 대한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이 보통 3년에서 10년 기

간 동안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입주 회사들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납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 통신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설치된다.

둘째,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은 일반적인 자유무역지역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무역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활동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국제무역의 원활한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은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한 무역과 관련한 각종 제약조건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각국 정부규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왜곡효과를 완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역중심형 개방에는 관세자유지역, 외국인무역지역, 수입촉진지역 등 형태가 있다.

셋째, 생산·교역복합형 개방거점은 생산중심형 개방거점,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생산 및 물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 가능한 지역이다.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허용, 외환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국제공항·국제항·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의 완비를 통한 국제비즈니스 활동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들 지역은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교통, 관광, 금융, 수송 등 다양한 기능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완전히 개방된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무역, 생산 및 금융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토대로 육성된다.

넷째, 지식창조형 개방거점은 복합형 기능이외에 종합적 네트워크 구성지역이라고 한다. 즉, 물류, 생산기능에 특화된 전통적인 개방거점에 추가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역외금융센터, 정보처리지구 등이 포함된다. 역외금융센터는 역외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정지역에 이들 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 정보처리지구는 도시의 일부지역 또는 특정지구 내의 일부지역에서 정보처리센터 개발을 위해 조성되는데, 주요기능인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그래픽 등 첨단 통신 및 고속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사례

위에서 언급된 개방거점의 4가지 유형을 사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중심형 개방거점-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아일랜드의 경제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 역사는 3가지로 구분하면 아래 <표Ⅱ-3>와 같다.

<표Ⅱ-3> 아일랜드의 경제발전단계

시간	시기
1922-1958년	수입 대체시기
1958-1987년	개방과 경제 위기발생시기
1987년 이후	고도성장 시기

아일랜드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기반 산업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932년 정부가 자급자족과 국내 보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대규모의 이민과 금융 위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는 1958년부터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1970년 외자 유치를 전담하는 산업개발청(IDA: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이 설립되었고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과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1951-1958년간 1.7%에 불과하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1958-1973년에는 6.7%로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해외기업과 아일랜드 기업간 연계화와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투자를 유치하는 산업 종류를 선별하면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만 아일랜드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전자, 소프트웨어, 건강의료 산업, 금융산업 등의 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였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었다. 낮은 비용의 인프라와 물류망 등 때문에 인텔, 휴렛 팩커드(HP), 델(Dell), IBM 등 300여 개가 넘는 선진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

여1980년 이후 유럽으로 향한 미국의 전자·컴퓨터 기업 가운데 40%가 아일랜드에
닿을 내렸다.

2001년 약 1,500개의 외국기업이 전체인구의 약 4.3%인 16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
했다. 외국 기업들은 왜 아일랜드를 선택했을까? 우선 외자유치를 위해 유럽 최저
수준의 12.5%(2003년 전에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또 아일랜드 정부는 집중
적인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실행했으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이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가 인력의 양성
에 적극적이었다.

2)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네덜란드

유럽의 비교적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
다.반경 500km이내의 1억6천만 인구가 있는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의 전략적 요충
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 산업이 유명한데, 연간 500만개 이상의 컨테이
너, 3억톤 이상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항구로 성장하여, 세계 10대 공항
의 하나인 스키폴 공항은 연간 1백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등 유럽의 관
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대륙 국가들의 물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유럽유통센터의 53% 이상을 차지하여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위
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항은 항만 자체의 물류 및 생산 활동만으로
도 네덜란드 GDP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의 주요 특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이
창고 유통업 등 물류과 직접 연관되거나 고객 센터와 같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물류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는 약 3건 이상의 추가
적 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원래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
류 관련 산업, 화학 및 제약공업, 전자 산업 등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물류에
서 현재는 단순 환적보다는 부가가치 물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
자 유치에서도 현재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생산·교역복합형 개방거점모형-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

1990년 4월 18일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계획의 핵심목표는 상하이 푸동특구(Pudong New Area)를 대외개방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태평양 연안의 국제적인 금융, 무역, 정보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의 푸동특구는 3단계에 걸친 계획에 기초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 생활 여건도 각별히 고려하고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중국의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33%인데, 푸동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재투자 경우 기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해 준다. 자세한 인센티브 내용은 제3장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재유인정책을 실행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이끌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 70개 다국적기업들은 푸동특구에 입주하였다.

4) 지식창조형 개방거점모형-싱가포르

면적이 683 km^2 이고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는 제조업 기반과 국내자본이 거의 없던 자유무역항이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내국기업 지원책을 사용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고도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시작했다. 최초부터 발전목표는 외자 유치를 통한 아시아의 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주로 시장과 원료공급지로 의존하던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관계가 나빠지거나 정치에 변동 발생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처음부터 싱가포르를 선진국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발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유익했다.

외자유치로 산업구조는 고도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는 체계적인 외자 유치와 산업 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첫 번째 작품이 주룽 석유화학 단지이다. 원유 수송의 중개 기지인 이점을 이용해서 석유화학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원료가공 및 제품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끌어들기 위해서 처음 10년 동안 세금도 전혀 받지 않았다. 둘째 주룽지역에 다른 관련 유화업체들을 적극 끌어들였

다. 이때 유화 단지 규모가 커지자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 단지를 새로 조성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본 외자정책의 변화 없이 정부가 지식클러스터 전략을 실행하여 정보화 사회를 추진하였다. 1991년 '전략적 경제 계획(SEP: Strategic Economic Plan)을 입안했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산업과 연관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활동 부문에 초점을 두면서 전체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정보의 생산, 전달, 보관이 용이해지면서 개별 사업보다 지식이 흘러다니는 산업간 연계로 옮겨 갔다. 제연관 산업의 강화는 고임금 국가에서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 고도화하는 중요한 대안이다. 정부는 정보산업에 대하여 '정보산업2000(IT2000)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켰다. 싱가포르를 지역 금융센터로 육성하는 것도 1990년대에 클러스터 전략과 함께 추진됐다.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국제 상업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이 기관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한다.⁹⁾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증진, 총생산 증가, 부가가치 창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동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¹⁰⁾

9) 안동도·류재원,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04, p. 196, 2003.

10) 박종실·우종균,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강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72, 2001.

<표Ⅱ-4>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조세	경제확장촉진법, 소득세법에 따라 EBD에 해당인센티브 신청
	선도기업인센티브	5-10년간 법인세면제
	사후선도기업인센티브	5년간 법인세면제
	확장인센티브	10만\$이상 확장시 추가이익분에 대한 법인세면제
	투자공제	신투자시 50%까지 소득공제
	승인된 해외차입	20만\$ 이상의 해외차입시 세금면제
	벤처자본 인센티브	
	해외투자 인센티브	
	서비스 수출	수출이 매출의 20% 이상일 때 수출액의 90%내에서 과세면제
	운영본부	50만\$ 이상 자본금의 운영본부(글로벌기업 본부)는 10년까지 소득의 10% 우대세율 적용
	R&D	이중세액공제

제3절 개방거점의 기능과 기대효과

1. 개방거점의 기능

21세기 무역은 국경 없는 전쟁이며 세계 주요 개방거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기업의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대응하는 고도의 국제비즈니스 수용능력, 글로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류시설과 효율적인 외자유치, 자유로운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제적 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거점 및 배후지역의 시설과 기능은 개방거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개방거점은 주로 외자 유치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외자 유치를 이용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화 경영관리 방법을 배우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 푸동특구 등 세계 주요 개방거점들은 물류·유통시설 및 지원시설, 첨단산업기지,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 도시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상호간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개방거점의 기능의 다양화,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위에 사례들을 통해 개방거점의 주요기능은 물류·유통시설 및 지원시설, 첨단산업기지, 국제무역 및 교류, 도시기능 등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방거점 설치 및 확대의 핵심목적은 외국 직접투자유치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중심 또는 각국의 산업 선점을 위한 전진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위에서 개방거점의 기본적 개념과 유형, 특징과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개방거점의 성공조건은 주로 두 가지이다. 즉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으로는 입지조건 기반시설, 배후지역, 노사문제, 세제지원 등을 들고 있다. 중국 푸동특구의 경우, 체제는 공산주의이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경제를 개방화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세제지원

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했으며,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경쟁체제를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개방거점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는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푸동특구와 같은 체제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푸동특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방거점의 주요 목적은 외자유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란, 역외나라에서 현지국으로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다시 투자목적과, 투자 주체, 투자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간접투자와 구분되어 진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지역경제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역경제의 건설한 산업화이며 전체적으로는 투명한 경쟁을 통한 국가의 기본적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지역경제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역경제의 건설한 산업화이며 전체적으로는 투명한 경쟁을 통한 국가의 기본적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개방거점 발전전략은 외국인 직접적인 투자로 인해 개방거점 내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전국의 고용 소득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적극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인한 고용효과와 이들 기업의 경제적 활동결과로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곧, 기업의 활동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수요창출로 인한 고용증대 등이 효과가 나타나다.

개방거점 성공의 주 목표 중 하나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공동화 현상을 저지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이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다.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기업과 해외 부품조달 국내기업의 국내 수입에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은 개방거점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

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부가가치창출 및 글로벌기업의 국내시장진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리고 해외기업이 국내외 부품을 개방거점 내에서 조달 받아 가공·조립 등 부가가치물류 서비스를 받고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거점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 벤치마킹 등은 자국 기업, 노동자들의 해외진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방거점 발전전략은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여 지역경제 내 산업구조조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외국인 투자가 선도기업의 기술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개방거점에서 여러 측면에 투자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시 지역경제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해당 산업분야의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도입효과는 생산기술, 경영관리능력과 정보, 규모의 경제 등을 가져오게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신기술의 도입은 지역내 비효율적인 기업을 효율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효율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이 가능케 된다. 선진 경영기법은 생산과정에서의 기업간 네트워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습득된다. 또한 개방거점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동화를 차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나, 단순 유통이 아닌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효과는 클 것이다. 1952

11) 백종실·우종규,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33,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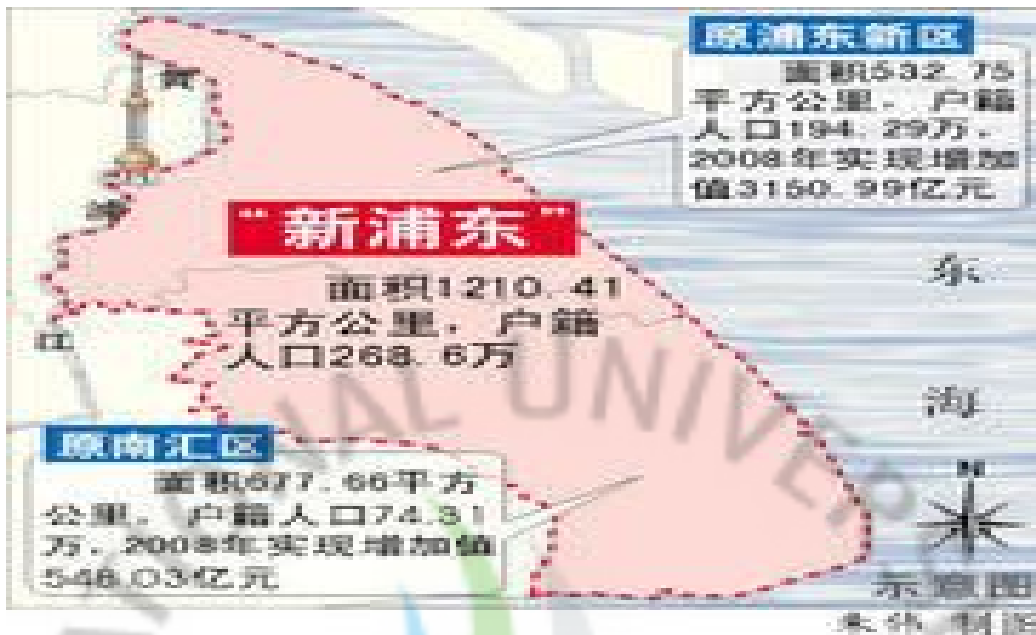
제3장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국제비교분석

제1절 상하이 푸둥특구 정책 및 그 시사점

1. 개관

푸둥특구란 상하이시 행정구역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는 황푸강(黃浦江)의 동쪽, 양쯔강 입구의 남서쪽, 훙양허 북쪽 대부분의 지역으로 상하이시의 도심과 근접해 있다. 면적은 약 1210.40 km^2 으로 제주도(1848.4 km^2)와 거의 비슷하고 2008년 말 인구는 약 280만명으로 약 제주도(55만명)의 5배이다. 상하이시의 중심부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푸둥특구는 중국 해안선의 중심에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력자원을 가지는 양쯔강삼각주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대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수준은 상하이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현재 제주도와 유사한 상황이다.

푸둥특구는 중국연해안의 중심과 장강(長江)입구 그리고 자원풍부한 상하이시와 장강삼각주에 있다. 푸둥은 장강삼각주의 최전방, 장강삼각주는 중국 동해안 제일 큰 도시지역구, 그리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어 경제협력도 높아 중국 전통 경제핵심구라고 한다. 장강삼각주와 장강연안지역의 면적이 약 중국 전체의 1/3, 또한 총생산량은 중국의 1/3이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서로 분업하고 협조하여 푸둥특구 주변에 완전한 산업연관이 만들어졌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실행되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상하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1990년 4월 18일 개발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계획의 핵심목표는 상하이 푸둥특구(Pudong New Area)를 대외개방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드는 동시에 태평양 연안의 국제적인 금융, 무역, 정보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다.¹²⁾

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새로운 성장단계에 도달하였다. 상하이시의 경제 발전을 견인차로 하여 연해의 산업과 기술을 내륙의 자원과 시장에 연계시킴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목적을 도모하였다.

1990년 4월 18일 중국정부는 상하이 푸둥특구의 개방과 개발을 선포하였고, 상하이시를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중심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후,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서 푸둥특구는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면모에서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 및 무역중심지, 고신기술산업의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거점을 설정하는데 있어 특별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기구인 국무원의 결정과

1) 본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하이와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상하이 푸둥특구와 비교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개발 방향이 유사한 상하이 특구와 비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같은 일방적 조치에 의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푸동특구를 개방거점으로 설정하고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은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절차로 이루어졌다.

푸동특구의 개방과 개혁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개발초기단계, 중점개발 단계, 전면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발초기단계(1986년-1995년)

(1) 푸동특구의 시작, 상하이 도시 총체 계획방안

개발초기단계는 1986년 7월, 상하이시정부가 “상하이 도시 총체 계획방안”을 중앙정부와 국무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방안에는 푸동특구개발의 가안이 제안되어 있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첫째, 적극적으로 푸동특구를 세우고 개조하며, 둘째, 푸동특구를 금융·기술·교육·정보와 상업서비스 구역으로 나누고, 셋째, 루자취이 근처에 새로운 금융·무역중심지를 만들고 상하이시 중심부로 부터 연결한다. 그리고 넷째, 푸동특구가 상하이시로 하여금, 대외개방에 눈 뜨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무원¹³⁾의 지시를 따라 1987년 이후, 상하이시 정부는 '푸동을 개발함으로써 상하이를 진흥시키고, 중국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연이어 상하이 지방정부는 푸동연합자문그룹과 지도 그룹을 발족하고 푸동특구 개발에 대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1990년 4월 18일에 이르러서는 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상하이 푸동특구를 개방한다고 선언하고 푸동특구에 경제기술개발과 경제특구정책을 허가하였다.

(2) 푸동특구개발지침의 등장

1990년 하반기 루자취이 금융무역구, 진차오수출입가공구, 외이가오차오보세구 등 3개 개발구역을 만드는 것이 푸동개발과 개방을 시작하는 첫 단계였다. 1990

13) 국무원은 중국 최고 권력 기관, 즉 최고 행정 기관을 말한다.

년 10월에 국무원은 상하이의 국가 전략적 지위와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발의 기반조성, 즉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푸둥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자유치의 기반 시설환경을 마련해야 했다. 또 투자자의 기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투자권이 금융무역구, 진차오출입가공구,외이가오차오보세구,장강고과학기술단지의 개발과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푸둥특구에 외자와 국내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 시기에는 푸둥특구의 개발과 개방이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때의 푸둥특구를 개발하는 지도방침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 지도방침은 첫째, 전체계획을 단계별로 실행하되 높은 프로젝트의 기점과 제품구조 단계를 도입한다, 마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듯이 그 수준은 매우 높게 설정하고,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치 제품 생산공장처럼 단계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둘째 해외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으로 외자를 유치한다. 특히 푸둥특구를 개발·개방하고 푸둥특구의 서쪽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조한다.

<표Ⅲ-1>지도방침

지도방침	전체계획을 구조와 하되 제품 생산공장처럼 목표달성 수준은 높게 잡아 각 단계별로 실행
	해외를 위주로 다양한 형식으로 외자유치

(3) 중국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 공산당 제14회 전국대표대회

푸둥개발에는 중앙정부가 상하이를 본격적인 중국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이는 1992년 공산당 제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가시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상하이를 국제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¹⁴⁾¹⁵⁾

14) 정해용, “중국 상하이의 도시개발 전략과 세계도시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p. 640, 2005.

<표Ⅲ-2> 푸동의 개발구별 유치산업

개발구	유치산업
루자쭈이 (陸家嘴)	• 금융, 무역, 증권, 보험 등을 유치하여 상하이의 첨단 금융 무역 지역으로 육성
진차오(金橋)	•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지역
와이가오차오 (外橋)	• 국제자유무역지대 • 황포강을 따라 형성된 부두를 바다로 옮기는 플랜을 수립하고, 투자할 계획
창장 (張江)	• 하이테크, 기술개발 지역으로 유전자, 생물학 등 BT, IT 등의 투자를 유치

1992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 제6회 대표대회가 열리고, 당의 14대 정선¹⁵⁾에 따라서 푸동의 개발을 촉진하고 대내외에 전체적으로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알렸다. 이 대회는 첫째, 2000년 푸동특구의 GDP를 500억위안¹⁷⁾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둘째, 2000년대초 푸동에 전국 일류 상하이 지방정부시설(市政)기초 시설과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고도 개방의 종합 자유무역구, 선진의 가공기지, 현대화의 변두리형 농업과 조립 서비스 기준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그 후 몇 십 년 이후는 푸동특구가 세계적 일류 수준을 가지는 대외개방형, 다기능의 현대화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4) 푸동특구 개발효과의 가시화, 푸동특구 위원회의 결정

1993년 1월1일에는 드디어 중국상하이시 푸동특구 업무위원회와 상하이시 푸동특구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개발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무역·출입가공으로 대외개방형 경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고속 발전하였고 그 해 GDP가 작년 대비 30% 증가하였는데 상하이시의

15) 이와 유사하게 한국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21세기 전략적 계획의 수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6) 중국공산당의 대회라고 한다. 5년에 한 번 씩 열리고 새로운 전략이나 중요한 결정을 의논하는 대회이다.

17) 2000년에 푸동특구의 GRDP는 1000억위안을 달성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15%나 높았다. 1995년 1월 8일, 중국중앙 (江澤民)총 서기가 푸동특구내 진차오(金橋)수출가공구에 대해 “ 중앙정부의 푸동특구에 대한 개발·개발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지속될 것이며 그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표명하였다.¹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푸동특구가 약 200억위안의 자본을 푸동특구에 투자하여 교통 등 기초 시설을 만들기로 하였다.



18) 실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푸동특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된 자본은 약 200억위안에 달하여 이는 교통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되었다.

<표Ⅲ-3> 개발초기단계 중국중앙정부는 상하이 지방정부의 푸둥특구개발전략

시간	내용
1986년 상하이도시 총체계획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푸둥특구를 세우고 개조함 • 푸둥특구를 금융·기술·교육·정보와 상업서비스 구역으로 나눔 • 루자쥬이 근처에 새로운 금융·무역중심지를 만들고 상하이시 중심부로부터 연결함 • 푸둥특구가 상하이시로 하여금, 대외개방에 눈 뜨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함
1990년 상하이국가 전략적지위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자쥬이 (陸家嘴) 금융무역구, 진차오 (金橋) 수출입가공구, 외이가오차오보세구, 장강고과학기술단지가 개발과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함
1992년 제14차전국 대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대 푸둥특구의 GDP를 500억위안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2000년대초 푸동에 전국 일류 상하이 지방정부시설(市政)기초 시설과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고도 개방의 종합 자유무역구, 선진의 가공기지, 현대화의 변두리형 농업과 조립 서비스 기준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함 • 그 후 몇 십 년 이후는 푸둥특구가 세계적 일류 수준을 가지는 대외개방형, 다기능의 현대화특구를 만든다는 것임
1993년 푸둥특구 업무위원회 상하이시 푸둥특구 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상하이시 푸둥특구 업무위원회와 상하이시 푸둥특구 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음 • 금융·무역·출입가공으로 대외개방형 경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가 고속 발전함.

2) 중점개발단계(1996년-2000년)

중점개발단계는 1996부터 2000년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에는 실질적인 개발과

개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상술한 3개 중점소구 외에 장 장 고급과학기술지구를 추가한 4개 특화기능의 중점개발단지 개발업무를 담당할 국유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국유토지를 자본금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기존 시가지인 푸시지구(푸동특구의 서쪽)와의 연결 교통망과 항만 및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동특구를 1차적으로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푸동특구는 다기능적이고 국제화된 첨단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건물의 외관 스카이라인이 고려되었으며, 건물은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으로 설계되어 쾌적함과 첨단 기능을 부여하였다.

3) 전면개발단계(2001년-2030년)

제3단계는 전면적 개발 단계로서 2001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푸동특구의 기능특화 그리고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병행 추진하였다. 즉 전면 개발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01년 상하이시의 정부행정 심사제도 종합개혁이 푸동특구에 시행되었다.

2005년 6월에, 국무원은 푸동에 대해 종합적 개혁 시행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 푸동특구의 GDP는 2365.3억원, 전년에 대비 13.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1.3%가 높은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푸동특구국제공항 1기 공사 완공 개통, 와이가오차오 항만, 지하철 2호선, 푸동신공항 연계도로 등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기반시설의 기초가 다져졌으며, 3차산업에 대해 금융, 무역 위주의 특성화와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표Ⅲ-4> 푸둥특구 3단계 개발계획

구분	내용
1단계 (1991-1995)	개발초기단계: 4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2단계 (1996-2000)	중점개발단계: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하여 비교적 완비된 푸둥특구 형성
3단계 (2001-2010)	전면적 개발단계: 외향경제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공업기지와 금융, 무역, 화학기술정보의 중심지로 발전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입법·제도

1) 투자유치제도

(1) 상하이 푸둥특구 개발 이전의 외자유치제도

중국전체에 대한 중앙정부 외자유치 정책이 전체를 총괄한다. 상하이 푸둥특구의 외자유치정책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중국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을 살펴보자.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 속도와 산업화 정도에 따라 변화 발전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투자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개혁개방 초기(1978년 이후) 경제개발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대외차관의 대폭적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로 개혁개방 강화와 본격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외자유치는 ‘以市場換資本(시장과 자본을 맞바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招商選資(선택적 외자유치)’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招商引資(외자유치)’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외자유치 정책변화에 따라 독자화 추세가 심화되었고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중국 진출 초기단계에서는 중국 현지 실정에 대한 불명확성, 제한적 개

방정책 등으로 주로 합자, 합작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WTO 가입 등 중국 시장 투자에 대한 위험성 요인이 사라지면서 투자는 증가되었다. 다만 적극적인 M & A 실시와 합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분규, 기술 유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독자 기업으로의 전환 및 독자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

최근에 독자 투자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합자 기업 설립 시 발생할 기술 유출 문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 외자 독자기업 비율이 44.6%에 불과했지만, 2007년 인기된 37,888개 외자기업 중 80%에 가까운 29,500여 개의 업체가 독자 투자를 한 데서 알 수 있다.

2008년 1~5월 기준, 상하이의 외자투자 기업수는 1471개 업체로 이 중 독자 투자는 1320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차 산업에의 투자는 1262개, 계약액 50억1300만 달러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중국의 많은 민영기업들은 합자 방식을 통해 국제 선진 경험 흡수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투자 기업의 독자화 추세는 중국 민영기업들에는 오히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선진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경영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Ⅲ-5>중국 외자유치정책 변화 및 투자패턴 추세

구분	외자유치 정책	주요 특징
1단계: 합자시대 (개혁개방~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유치 위한 각종 우대 혜택 저렴한 노동원가 우위 대외차관 위주 (외자유치의 6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경제 색채 여전함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탐색 단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합자·합작 형태 투자 위주. -주로 저가의 제조업 이전 기지로 선택 전 세계 화교 및 홍콩·대만·마카오 기업 투자 위주 외자기업: 가공생산을 위주로 해외 및 본국으로 수출
2단계: 후합자시대 (1992년~2005년)	‘以市場換資本’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혁개방 가속화: 2001년 WTO가입. 시장진입 제한 정책완화 외자기업의 대규모 중국투자 단계 -고속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능력 제고와 시장 확대. 시장 제한 정책 완화 등으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중국진출러쉬. -아시아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설립시작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기지 (세계의 공장)로의 의식 팽배 합자·합작 형태의 투자 -독자 투자비중 증가,(합자에서는)과분수 이상의 자본확보로 주도권 확보 장지적인 투자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측면을 고려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내수시장 마케팅 강화
3단계: M&A 및 독자화시대 (20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招商選資’시대 선별적 외자 유치 사업 구조조정 양적 유치에서 질적 수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기업 철수 본격화 중국 M&A 시장 활성화 및 기업인수합병 통한 중국진출 지분확대 통한 합자기업의 독자전환 추세 중국내수시장 진출로 인한 쟁탈전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자금보다 기술, 인재유치 강조, 첨단산업 및 환경보호형 기업, 서비스형 기업, R&D 센터 등 우선 유치 문제점: 동부지역의 부족현상 심화

자료원 : 자료종합 청두무역관 정리

(2) 상하이 푸동특구 개발당시 외자유치정책의 기초

가. 중앙정부

외국 투자기업 우대정책은 발전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선결 조건이었다. 푸동특구 개발의 시작단계부터 중앙정부가 많은 우대정책을 제시하였고 상하이의 국가 전략적 지위와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즉,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상하이의 21세기 발전방향을 “상하이 푸동특구의 개발·개방을 서두로 하여, 장강 연안 도시의 개방을 진일보시키고 상하이를 국제 경제·금융·무역 중심으로 건설하여, 장강삼각주와 전체 장강유역지구의 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 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푸동특구를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하이 당국은 중앙정부에 대해 사회주의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의 거시통제에 복종하며, 재정 상납액을 확실히 달성한다는 이른바 3가지 조건을 약속하였다. 또한 개혁원칙으로 자비개혁¹⁹⁾, 솔선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상하이가 중앙에 대해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부 간 타협의 계기로 인식되었다. 또한 푸동특구개발의 초기 자금은 5년간 약 65억 위안의 중앙정부 지원이 확보되었고, 대외적으로 세계은행·IBR·IMF 및 각국 정부로부터의 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 토지사용권 유상양도 수입 등이 허용되었다.²⁰⁾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상하이 푸동특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이 용이고 상하이가 용의 머리라면 푸동특구는 여의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총 1억 6천만 m^2 을 특구로 지정하여 푸동특구를 집중 육성한 뒤 상하이, 나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지역을 생산·R&D 및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여 중국 경제 발전의 전진 기지화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많은 세율과 행정 혜택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19) 전의 우대정책과 다르게 국무원은 푸동특구에게 재정에 지원 등 없이 제도에 창의적 선행선시(先行先試)의 우선권을 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자비개혁이라고 한다.

20) 정해용, “중국 상하이의 도시개발 전략과 세계도시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p. 640, 2005.

(2) 중앙정부가 푸둥특구에 부여한 최초의 10대 혜택(1990년)

1990년 중국중앙정부가 푸둥특구를 발전하기 위해서 상하이 정부에 ‘푸둥 개발과 개방에 대한 문제의 지시요청서’를 심사하여 허락하고 처음으로 푸둥에게 10개 혜택 정책을 주었다.

- 외국투자자가 푸둥특구에 생산적 ‘3자’²¹⁾ 기업을 투자하면, 15%의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단, 비생산성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0년이상 투자를 한다면, 이익을 얻는 해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3년째부터 3년간은 소득세를 50%만 징수한다.
- 푸둥개발구에 기업은 필요생산물, 즉 기계, 차량, 건축재료 등을 수입할 때 과세와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²²⁾를 감면한다. 그리고 푸둥특구에 “3자”기업은 생산용 설비, 원재료, 운송차량, 자동 사무용품 및 외국투자자들이 집에서 쓸 가정용품, 교통수단 등을 수입할 때 과세와 공상통일세를 감면한다. 중국 규정에 따라 생산제품을 수출하면 수출과세와 공상통일세를 감면한다.
- 외국투자자가 푸둥특구에 생산성 프로그램을 투자하면 제품은 수출 위주로 생산되어야 한다. 부분 대치수입제품(替代進口產品)을 주관하는 부서의 허가를 받

21) 중국에서 중외합자운영기업·중외합작운영기업·외상단독자본기업 三 가지 외국투자기업은 삼자(三資)기업이라고 한다. ①합자기업의 정의: 합자투자 방식은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듯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 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②합작기업의 정의: 외국과 중국위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쫓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 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외자기업 단독 법인의 정의: 외국인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22)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는 중국내에 외국기업, 중외합자 기업, 중외합작기업들에게 납부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즉, 중국에 공업상품을 생산, 농산품 구매, 외자수입, 상업소매, 교통운송과 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은 공상통일세의 납부인이 된다.

으면 과세와 공상통일세를 납부한 후에 국내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에너지 교통 프로그램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는 해부터 5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5년 이후부터 5년동안 50%만 받는다.
- 외국 투자자가 푸동특구에 제3차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된 외국 투자자가 금융관련 투자와 상품 소매 등의 사업을 허가 받으면 푸동특구에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 외국투자자가 상하이에 푸동특구를 포함하여 외자은행(外資銀行) 23)을 설립할 수 있다. 우선 재무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푸동특구 개발에 따라서 외국은행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동시에 외자은행의 소득세율은 적당히 내려가고 업무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받는다.
- 푸동특구에 있는 보세구24)에서 외국투자자가 중개무역(intermediate trade)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세구의 투자기업은 본 회사에 생산용 원재료, 부품을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세구의 주요 운영관리인원은 출입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을 여러번 발급받을 수 있다.
- 푸동특구에 있는 중자기업25), 국내 기타 지역의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푸동특구의 산업정책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대처하는 방침을 실행하였다. 산업정책에 부합하여 푸동개발과 개방에 유리한 기업이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푸동특구에 토지 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정책이 실행되었, 사용기간은 50-70년이다. 외국투자자가 대단위로 개발할 수 있다.
- 푸동특구의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발, 투자하는 필수 기초시설을 제공했다. 푸동특구에 증가하는 재정수입은 푸동특구의 개발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푸동특구에 투자하고 활용한다.

23) 외자은행(外資銀行)은 중국에 외국자본으로 단독 투자하고 설립하는 은행이다. 외자은행의 운영 범위는 각 나라의 은행법과 관리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4) 와이가오차오(高橋保稅物流園區): 2004년 개발되었고,면적은 1.03 km^2 이다.

25) 중국 국적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거나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기업들을 중자기업이라고 한다.

(3) 중앙정부의 푸동특구에 대한 계속되는 지원(1992년)

① 추진된 5대혜택

1992년에 중앙정부국무원은 푸동특구에서 중자·외자·무역 등을 하는 외자기업을 심사하여 인가하는 5개 혜택정책을 주었다.

- 정부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保稅區)에서 중자, 외자 등 중개무역을 하는 외자기업을 상하이시가 스스로 심사하여 인가토록 하였다.
- 정부는 국영 대기업 및 중소 생산성기업의 수출입운영권을 푸동특구에서 상하이시가 스스로 심사하여 인가토록 하였다.
- 중앙정부는 푸동특구에서 비생산 프로그램을 상하이시가 스스로 심사하여 인가하는 권한을 주었다.
- 정부는 푸동특구에서 생산활동이 총 투자액 2억 위안 이하 이면 상하이시가 스스로 심사하여 인가토록 허용한다.
- 상하이시는 중앙정부의 기준액 범위내 자기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 자세한 발행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이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동시에 중국 각지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상하이시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본증가 권리부여

그리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상하이시에게 5개 자본을 마련하는 권리를 주어 '八五' 계획²⁶⁾ 기간에 실행하기로 하였다.(1991-1995기간에)

- 상하이시가 해마다 5억 위안의 푸동특구의 건설채권을 발행할 수있다.
- 정부는 상하이시에게 해마다 1억달러를 주면서 해마다 2억달러의 우대한 이자율로 대부권을 증가하게 주었다.
- 정부는 푸동특구의 개발을 자본 마련하기 위하여 상하이시가 원래 1억위안

26) 1991부터 1995까지 이기간은 '八五' 계획기간이라고 한다. 즉 제8번째 5년 계획이라고 한다.

의 인민폐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권한을 주었다.

- 정부가 상하이시가 해마다 1억달러의 B종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
- 중앙정부가 원래 해마다 2억위안을 푸둥특구개발비용으로 지원해 주면서 1992년부터 해마다 더 1억위안 인민폐를 증가시켜주었다.

(4) 확대, 강화되는 푸둥특구 지원과 혜택(1995년)

1995년 6월에 중앙 국무원은 ‘九五²⁷⁾’ 기간에 상하이 푸둥특구의 개발과 개방에 대한 정책의 통지²⁷⁾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九五’ 기간에 푸둥특구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었다.

이 혜택은 주요 재정조세과 자본 시장의 개방 확대, 기능성 정책 및 심사권의 확대 등 3가지가 있다. 주요 5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모부에 허가를 받아서 수출입 운영권을 가지고 년수출액이 1억달러가 넘는 외자기업과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상인 자영 생산성 기업은 상하이시의 허가를 받고 푸둥특구에 지점 회사를 만들 수 있다.
- 푸둥특구에서 대표적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여, 상하이시가 자세한 방안을 세우고, 외경모부에 운영범위와 무역금액을 심사를 받고 난 후에 중앙국무원 심사에서 인가받으면 3~4개 중외합자 외자기업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 와이가오차오보세구(外高橋保稅區)에서 상품 소매 외에 보세적 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무역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다.
- 일단 중앙정부는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운영에 동의하면, 우선 푸둥특구에서 시험운영을 하고, 푸둥특구에 개별 외자은행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 조건을 갖추고,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루자쭈이(陸家嘴)에서 등록하는 외자 금융기구는 푸서와 보세구(外高橋保稅區)에서 지점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푸둥특구에서도 몇 개의 외자와 중외합자 보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27) 1953년부터 첫 번째 5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매 5년에 한 번 씩 9개의 “5개년”계획을 만들었다. ‘九五’계획 (1996~2000)이라고 한다.

나. 상하이 지방정부

① 상하이 지방정부의 정책

중앙국무원은 푸동특구에 일련의 혜택정책을 주어서 푸동특구가 개혁개방을 선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공十四届五中대회에서 중국에 5개 경제특구와 푸동특구(“5+1”)²⁸⁾개발과 개방 선행시험구의 구조를 확고하게 세웠다.

상하이시정부는 중앙국무원의 방침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고 푸동특구 개발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 대책은 다음과 같다.

- 푸동특구 개발위원회를 조정하여, 중대한 정책적 문제와 중대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결하고 푸동특구 개발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 상하이시정부는 국무원이 공포한 ‘九五’ 기간에 상하이 푸동특구의 개발과 개방에 대한 정책의 통지와 ‘九五’ 기간에 푸동개발과 개방 자본배분정책에 따라 자세한 방안을 세우며, 우선 푸동특구에서 중외합자 외자기업, 재무기업, 외자은행운영 등 앞서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봤다.
- 유리한 시기를 설정하고 외자유치의 역량을 더 키웠다. 노동력을 통제하고, 토지 자본을 줄고, 시행정기구에 맞추고, 행정처리 간단화, 종합기능을 확대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유치의 역량을 키웠다.
- 푸동개발과 개방에 기초시설 프로그램과 산업 대책을 실현시키다. 푸동특구와 기타 부서는 합작하여, 국가“九五”계획에 중요 건축과 프로그램 등 항목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자본을 마련하고 적절한 계획에 대한 연구를 확대시키고, 상하이시와 푸동특구의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²⁸⁾“5+1”은 선전경제특구(深圳)、주해경제특구(珠海)、산두경제특구(汕頭)、하문경제특구(廈門)와 해남경제특구(海南經濟特區) 그리고 상하이 푸동특구라고 한다.

②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상하이 지방정부의 자체노력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하이정부가 다음과 같이 주로 5가지 혜택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외국기업들은 푸동특구에서 백화점과 마트 등의 서비스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기업판매 (企業銷售) . 화물수입 (貨物進口), 화물구매(收購出口) . 외자조절(外資調劑) 및 관세감면(關稅減免)과 기업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 외국인 투자자가 상하이에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상하이에서 증권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푸동경제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하이는 푸동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인민폐 증권과 B중 증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하였다. 즉 상하이에서 증권시장을 자유롭게 발전하는 권한과 자본 거래 중심의 형성을 추진시켰다.
- 푸동특구내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외오고자오 보세구를 만들고 (外高橋保稅區) , 보세구내에서 관세를 감면해주고 허가증도 면제하고 외국 통화를 유통시키는 등 특별혜택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푸동지역정부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심사권한을 확대시킨다.

<표Ⅲ-6>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혜택 정책

업종 및 지역	혜택내용
서비스산업	기업판매 (企業銷售) · 화물수입 (貨物進口)· 화물구매(收購出口) 외자조절(外資調劑) 및 관세감면(關稅減免)과 기업소득세감면
금융업체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업체의 설립
증권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동특구 발전을 위한 증권거래소 설립 • 인민폐 증권과 B중 증권을 저절로 발행
보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내에서 관세를 감면 • 허가증 면제 • 외국통화 유통가능 등 특별혜택
외무기업	행정심사권한 확대

(3) 투자 환경 개선

상하이시 푸동지구정부는 외국투자자가 푸동에 와서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一門受理、一口收費”제도를 시행하였다. “一門受理”는 투자 소속을 밟는 기구들이 모두 푸동지구 투자유치 중심빌딩에서 모여서 외국투자자가 빌딩안에 자문부터 심사, 허가증 등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一口收費”는 여러까지 비용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실행한 후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에 부담을 줄였다. “一門受理、一口收費”제도를 확실히 실행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푸동지구에서 투자프로그램 사무실을 설립하고 투자 프로그램의 처리 과정을 감독하였다. 이 정책을 실행한 후 6개월동안에 282개 외자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한 것이다.

3. 투자유인제도

① 외자유치를 위한 조세정책과 관세정책의 특징

가. 푸동특구의 조세정책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 생산적 기업을 투자하면, 15%의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비생산성기업이 정부에 허락을 받고 “특별 면세”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 생산적 기업을 10년 이상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은 해 부터 2년간에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고 3년간 50%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서 “선진기술기업”을 투자하고 소득세를 감면한 기간이 만료되면 앞으로 3년에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제품수출기업”이 규칙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 기간이 만료되고 그 해 제품 수출액이 총 제품 판매액의 70%이상을 넘으면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삼자(三資)선진기술기업은 세율을 감면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세금을 감면을 받는 벤처 기업 (venture business)이 이익을 다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수출기업이나 벤처 기업 (venture business)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100% 돌려주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면 받은 세금의 40%를 돌려준다. 그리고 얻은 이익을 송금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산물, 석탄을 수출하면 관세환급률은 3% 이고 농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공산품의 관세환급율은 6%이고 다른 수출상품의 관세환급률은 9%이다.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서 항구·에너지·교통프로그램에 투자하면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들은 세무기관이 허가하여 이익을 얻을 해부터 5년에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고 다시 5년에 50%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 2000년 말 전에 푸동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 직접 집을 짓거나 집을 구매하면, 시작부터 5년까지 부동산세를 감면한다.
- 푸동특구에서 설립한 외국은행나 중외합작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국투자자가 투입하는 자본이 천만 달러를 넘고 운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1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그리고 이익을 얻는 해부터 1년동안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고 또 제2과 3년에 기업소득세를 50% 징수한다.²⁹⁾ 외자은행이나 중외무역회사는 인가받으면 인민폐업무를 할 수 있다.
- 수출보세는 보세창구에 보세업무를 제공하여 상품원료와 완성품을 수출할 때 보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9)인민망·중국공산당신문 <http://cpc.people.com.cn/GB/104079/104080/6322492.html>

<표Ⅲ-7>기업소득세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면오반감(五免五減半). 즉 공항, 항구, 공로, 발전소 등 같은 에너지. 교통건설 프로인재국제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외국 상인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5%로 감면하다. • 투자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담당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년도부터 5년간은 전액 면세, 이후 5년간 50% 감세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 二년三減半(二免三減半). 즉 중앙정부는 푸동특구 내의 외국사람이 투자하는 중국과 외국의 합자기업, 중외협력, 외국상인이 투자경영하는 생산성기업 등의 기업소득세율은 일률적으로 15%로 하는 세제 특혜를 부여한다. 아울러 투자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외자 생산기업에 대하여는 이익발생년도부터 2년간 전액 면세, 이후 3년간 50% 감세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 一면二減半(一免二減半). 즉 외자은행, 외자은행 지점, 중외 합자은행 및 재무회사 등 금융기관 외국 투자자가 자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운영 자본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은 일률적으로 15%로 하며, 이익발생 년도부터 1년간 전액 면세, 이후 2년간 50% 감세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 두가지 기업의 감세. 제품수출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기간만료 후에도 기술선진형 기업은 신청에 따라 3년간 감세를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푸동특구의 주식, 이자율, 임대수입 등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들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들 중에 우대적으로 자본을 제공하고 시설이나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 중외합자 경영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이 얻은 이익을 외국에 보낼 경우 외환액에 대한 소득세율을 면세하다. • 외국 투자자가 5년 이상 본사 및 외국투자기업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외자 투자회사를 만들 경우,기 지불한 소득세에 대해 40%를 환급해 준다.
지방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까지 특구 내·외자투자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다 • 외자 투자기업은 푸동특구에 집을 직접 짓거나 새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그 때부터 5년간 집세를 면세한다.

<표Ⅲ-8> 심사정책

특별 심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기업들은 외자 보세구역에 다른 보세성질을 가지는 상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비스 무역을 점점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푸둥지구에 들어와서 인민폐(人民幣)를 운영하는 외자은행은 우대권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중국인민은행의 심사를 받고 뤼자우에 가입하는 금융기관은 푸서와 외자보세구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푸둥특구에 외자와 중외합자 보험기관도 설립할 수 있음

<표Ⅲ-9> 행정정책

행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둥특구가 한 걸음 더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자를 위한 행정서류를 심사하는 비준방식을 개혁하고, 투자 유지센터가 '일문식'³⁰⁾(一門式)서비스를 실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것을 제공하고 자문, 처리, 심사 등 모두 연속하여 진행하는 '일조용'³¹⁾(一條龍)서비스를 만든다. 더불어 총 투자가 3000만 달러 이하의 외자투자 프로그램은 심사와 인가하는 과정을 '십일 근무'로 진행함

나. 푸둥특구의 관세정책

해관³²⁾은 푸둥지구에서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은 고학 연구 기구와 첨단기술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 “녹색통로”를 만들었다. 즉 녹색통로를 이용하는 수입화물은 다른 기업보다 간단하고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급한 특수한 화물이라는 보증서가 있으면 일단 화물이 들어오고 수입이 되도록 처리해주고 필요한 행정

30) 一門式: 각종 수속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이다.

31) 一條龍: 작업의 연속된 공정, 연속된 순서이다

32) 중국 연해, 국경 1지대, 내륙항구 등에 수출입에 대해 감독과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한국의 세관에 해당한다.

처리하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A급 기업³³⁾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화물을 수입할 때 "先放行、后征稅"(선수입 후 징세)를 하여, 특수경우(特殊)에는 보증한(保証函)에 의해 해관에서 통과를 허가하는 것 등 아래와 같이 6가지 혜택 정책이 있다.

- 해관에 전문 창고를 설치하고 우선 화물수출입 소속을 처리하여; 기업의 요구를 대한 "문대문"(門對門)식으로 화물을 심사하다.
- 가공무역을 종사하는 기업은 해관에 허가를 받고 해관직원이 직접 기업에 와서 감독 관리하거나 인터넷에 집중 관리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선 해관은 기업이 제출한 보증서에 의해 규정 검사를 거친 뒤 통과시키고 보증금을 면제하다.
- 관세는 꼭 심사해야 하는 기업수입 화물에 대한 표본 심사를 면하다
- 기업에 전문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세관 신고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자영수출입 생산성 기업과 고학연구기구는 외경무부에 수출입 회사로 신청하며 해관은 우선 등기소속을 처리해준다.

그리고 푸둥 보세구에 있는 기업들이 자가용시설, 사무용품, 생산용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세금을 면제하거나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공 제품은 수입원재료에 과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하다. 수입화물은 보세구에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상업용 가공도 할 수 있다.

1996년 3월 31일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생산기업은 생산용 시설을 수입하면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그리고 중국국무원은 1998년 1월 1일부터 '외자투자산업지도목차'에 맞는 기술 이전 외국투자프로그램의 투자용 시설에 대해서 '외상투자프로그램에 세금을 감면하지 않은 수입상품 목차'의 상품 외에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외

33)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이다.A급 기업은 해관에 심사하여 비준하고 해관이 A급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다.

국정부대출과 국제금융조직 대출 프로그램의 생산용 시설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외 국기업이 제공하는 수입시설' 외자투자프로그램에 세금을 감면하지 않은 수입상품 목차'에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표Ⅲ-10>관세정책

관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3월 31일 전에 설립했던 외자투자 생산 기업은 생산시설에 대해 수입관세과 수입과징금을 면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4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에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 기업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외자투자기업에 면세하지 않은 상품의 규정에 따라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과 수입과징금을 면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월부터 설립된 기업들은 <외자 투자 산업 지도 목록>과 <외자 투자 기업에 대해 면세하지 않는 상품의 목록>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과징금을 면세함

②인재 도입정책

푸동특구는 “인재 세계 브랜드”를 앞장서서 개방형·다원화 인재 국제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인재는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고 인재 국제화 전략을 시행하였다.

가. 대공사를 통해 외국전문가를 영입

상하이정부는 개발초기 외국의 인재를 이용하여 대공사와 중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푸동특구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세기대도를 건축할 때 프랑스에서 8명 건축 전문가를 초빙하고 디자인하였다.

나. 삼자기업의 설립을 통해 외국 관리인재와 기술인원을 푸동특구에 유입

현재 푸동에서 등록되어 있는“삼자”기업은 7,000개를 초과하며 이들은 푸동의 과학기술·경제·종합경쟁력수준을 상승시키면서 더 많은 외국 관리 인재와 과학 인재를 푸동특구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 장강과학기술원 등 4대 개방구를 바탕으로 해외 유학인원을 유인하고 푸동 창업을 독려

상하이시와 푸동특구는 조치를 취해서 해외 유학 인원을 이끌어오는 것을 수년에 걸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푸동특구의 유학인원은 증가하였고 고급품질의 노동력이 되었다.

라. 과학·문화 교류로 국제 인재를 푸동에 유인

푸동특구 국제화에 따라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해마다 국제 인재를 초빙하여 단기 교류뿐만 아니라 푸동에 와서 오랫동안 경제 기술과 과학교류를 하는 국외 인재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마. 해외연수를 통해 향토인재를 국제화 시킴

푸동 개발이후 국제인재 향토화와 향토인재 국제화 전략을 고수하여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향토 인재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화 인재를 집단적으로 육성하였다.

4. 계획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력과 위안화 국제지위에 부응하는 국제 금융중심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 아래의 5대 구체 임무 및 구체조치를 실행하였다.

1) 다양한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상하이 발전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 참여해 국제화 정도가 높고 교역, 가격결정, 정보 기능을 갖춘 다차원적인 금융시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상하이는 금융시장 상품과 도구를 다양화하고 회사 채권, 유동화채권을 발전시키며, 외환채권 등 기타 다양한 종류의 채권 발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2) 각종 금융기구 시스템 발전

국제경제력과 업종 영향력을 구비한 금융기구를 주체로 해 각종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금융기구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상하이는 은행 간 채권시장과 교역소 채권시장 간 상호교류 강화, 상장 상업은행의 교역소 채권시장 진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3) 금융 인력 자원 시스템 발전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금융 인력 자원 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상하이는 해외투자자가 상하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비율과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국제개발기구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규모를 점차 확대, 해외기업의 중국 내 위안화 주식 발행 추진,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기업의 위안화 주식 발행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4) 법률법규 시스템 발전

국제관례의 세수, 신용, 감독 등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여건이 성숙되면 선물지수, 환율, 이자율, 주식, 채권, 은행대출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출시하였다. 선물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고 선물 품종을 심화, 전문화시키기 위함이다. 신에너지와 금속류의 대중상품 선물제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내 선물교역소가 해관특수감독구의 선물보세구 내에서 직거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5) 금융 발전 환경 마련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 발전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상품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륙과 홍콩의 금융협력과 상호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재정부, 세무총국, 보험감독회는 상하이시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인구매 양노보험제품 세금공제 시범 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Ⅲ-11> 금융 허브의 목표와 임무

구분	목표와 임무
전체 목표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력과 위안화 국제지위에 부응하는 국제 금융중심 건설
5대 구체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국내·외 투자가와 공동 참여해 국제화 정도가 높고 교역, 가격결정, 정보기능을 갖춘 다차원적인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 각종 금융기구 시스템 발전 -국제경제쟁력과 업종 영향력을 구비한 금융기구를 주체로 해 각종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금융기구 시스템 발전 • 금융 인재 자원 시스템 발전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금융 인력 자원 시스템 형성 • 법률 시스템 발전 -국제관례의 세수, 신용, 감독 등 법률법규 시스템 • 금융 발전 환경 마련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 발전 환경 마련
구체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능, 다양한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금융시장 상품과 도구를 다양화하고 회사 채권, 자산유동화채권을 발전시키며, 외환채권 등 기타 다양한 종류의 채권 발전 연구 • 은행 간 채권시장과 교역소 채권시장 간 상호교류 강화, 상장 상업은행의 교역소 채권시장에 진출하는 시범 시행 추진. • 여건이 성숙되면 선물지수, 환율, 이자율, 주식, 채권, 은행대출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출시 -선물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고 선물 품종을 심화, 전문화시킴. 신에너지와 금속류의 대중상품 선물제품을 단계적으로 도입 -국내 선물교역소가 해관특수감독구의 선물보세구 내에서 직거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성 모색 • 해외투자자가 상하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비율과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국제개발기구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규모를 점차 확대, 해외기업의 중국 내 위안화 주식 발행 추진,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기업의 위안화 주식 발행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 •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제품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륙과 홍콩의 금융협력과 상호 발전을 추진 • 재정부, 세무총국, 보험 감독회는 상하이시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인 구매 양노보험제품 세금공제 시범 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

출처: 언론 보도를 참조해 KOTRA 상하이 KBC 자체 작성

<표Ⅲ-12> 물류 허브의 목표와 임무

구분	목표와 임무
전체목표	2020년까지 물류자원을 집중, 물류서비스기능 완비, 물류시장 환경 개선, 현대 물류 서비스를 효율화시켜 글로벌 물류자원 배분능력을 갖춘 국제 해운중심 건설
구체임무 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 심수항 등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항구 물동량 확대 • 상하이를 경유지로 하는 국제 컨테이너선의 항만 이용비 인하, 대외무역 컨테이너의 상하이 물류 환적 장려 • 양산보세 항구 내 설립한 해운기업이 국제 해운업무를 통해 취득한 소득 가운데 영업세 면제 • 양산보세 항구 내에 설립한 창고, 물류 등 서비스기업이 물류, 운송, 창고 등의 업무를 통해 취득한 소득 가운데 영업세 면제 • 기업의 offshore account 개설을 허용해 해외업무의 자금 결제에 편리 제공 • 대형 선박제조기업의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허용, 금융 리스회사가 은행 간 시장에 자금 차입,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 • 해외 국제 우정해운회사가 상하이에 경영성 기구를 설립해 인가를 얻은 국제항선 우정 해운서비스 허용 • 2009년 1월-2013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감세해 15% 세율 부과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직원 교육경비가 기업 임금 총액의 8% 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함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소득에 대해 영업세 면제

출처: 언론 보도를 참조해 KOTRA 상하이 KBC 자체 작성

5. 성과

1). 정량적 성과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 아래 1990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된 푸동특구는 도시 기반시설과 현대적 산업체계를 건립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내륙시장과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 상하이시가 목표로 내건 '국제 경제·금융·무역 중심'을 향하여 꾸준히 전진해 나가고 있고,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현대화 건설의 축소판 역할을 하고 있다.³⁴⁾

루자웨이(陸家嘴)는 2008년 말, 중국인민은행과 주요 상업은행의 본사와 지역 총본부, 46개의 외국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중국 최대의 금융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와이가차오(外高橋) 보세구는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지구 중의 하나로 면적은 6.4km²이며 국제무역, 수출가공, 보세창고 3대 기능이 일체화되어 있다. 와이가차오(外高橋)의 항구는 유럽, 중동, 북미, 남서부아프리카, 지중해 등과 컨테이너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07년 화물유동량은 13122.80만톤이다. 진차오(金橋) 수출가공지구는 푸동신구 중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20km²이고, '고급표준, 외향형, 다기능, 강렬한 파급효과'를 목표로 건설하였다.

2008년말 기준으로 푸동특구에는 12,423여개의 국내외기업이 입주한 상태였으며, 총공업생산치는 5649.22억위안을 초과하였다. 장강(張江)첨단기술단지 는 푸동특구 중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17 km²이고 총공업생산액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2.139억원을 초과하였다. 푸동특구의 GDP는 약3150.9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2008년 말까지 푸동특구에는 241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하였고, 투입된 자본금은 456.54억달러에 달한다.

개발 후 현재 상하이는 이미 세계에서 금융 무역 등 여러 방면에 손꼽히는 대도시가 되었다. 푸동특구에 있는 동광명주, 금목빌딩, 상하이국제회의센터 등 이미 상하이 외탄 대신 상하이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다. 시내에 지하철과 고가도를

34) 이광국·오세경, "상하이 푸동지구의 개발벤치마킹을 통한 부산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연구", 「아시아연구」, p. 238, 2004.

건설하고, 외곽 지역에 신규 주택가를 많이 조성하는 한편, 근교에 위성도시들도 형성되었다. 푸동특구의 신속한 개발은 현대화와 국제화를 겸비한 대도시로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상하이를 건설해나가고 있다.

푸동특구는 거의 20년 동안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2008년 기준으로 푸동특구의 외자유치는 7500억 원이고 GDP는 3,150,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성장한 수치로 경제총량에 있어서 전국 도시 중 종합도시경쟁력면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푸동특구에 입지한 각종 중외금융기관은 약 544개이며 외자기업은 푸동경제에 약 70%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개혁 후 10년만에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0.7% 달했고, 1999년 GDP는 1990년 대비 3배 증가한 800억 위안을 달성했다. 그리고 경제 구조도 농업과 가공경제중심에서 금융·무역·고신기술 산업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16,967개의 국가 및 지역이 푸동특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계약 기준 외자이용액은 456.54억 달러이다.³⁵⁾ 또한 중국정부와 타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 건수는 3,900건, 투자액은 약 110억 달러이고, 단독 자본 투자 기업은 12,800여건, 투자액은 약 310억 달러이다. 포춘(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180개의 다국적 기업이 푸동특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에 91개가 푸동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푸동특구의 투자 현황을 정리하면 <표Ⅲ-13> 과 같다.

3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2009년 현재 외자이용액은 2조 600억 원이다.

<표Ⅲ-13>푸동특구 외자유치 현황

연도	프로젝트	금액(억\$,계약기준)
2002년	964	26.68
2003년	1,672	28.75
2004년	1,688	32.24
2005년	1,734	56.54
2006년	1,446	48.43
2007년	1,254	49.49
2008년	803	49.43
2009년 1월-3월	960	9.94

출처: 중국상하이푸동통계

개혁개방 이후에 30년 동안 상하이시는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2007년 말 까지 상하이시는 세계 131개 국가 및 지역의 48,753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약 1,294억 달러를 국내에 끌어들이어 왔다. 2007년 상하이시 외자기업들은 약 1,424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상하이 재정수입의 20%, 지방재정수입의 67%를 차지하였다.

<표Ⅲ-14> 상하이시 2007년 무역 및 외자 현황

구분	수치(억 달러)	2006년대비 (증가율%)
총 수출액	5209.1	24.4
수출액	3284.8	21.5
수입액	1924.3	23.2
외자도입합자금액	148.69	2.03
외자도입실금액	79.2	11.4

출처: 상하이 年鑒2008 참고

2). 정성적 성과

(1) 수출주도공업화전략³⁶⁾(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과 수입대체전략³⁷⁾(import substitution)을 병행하여 상하이의 산업등급 향상

개혁개방 초기에, 상하이의 외자유치 전략은 수출주도와 수입대체를 병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가하였고 외환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수출입 가공형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기술기업을 국내에 끌어들여 국내에 필요한 제품을 합작 협력생산하면서 첨단 생산기술과 경영관리 경험을 축적하였다.

상하이에 외자유치일선은 개발구이다. 2007년 말까지 상하이에는 41개 국가개발구와 시급개발구가 있었고 시작 단계의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원구, 보세구, 출입가공구, 공업원구, 물류원구, 상무구 및 생산성 서비스공업원구 등 기능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유형이 다양한 개발구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였다. 2007년 말까지 개발구에 16,164개 외국인 투자 프로그램을 끌어들이고 상하이시의 36%를 차지하여 유치가 338억 달러를 달성하고 상하이시의 45%를 차지하였다. 2007년 개발구는 상하이시의 10%의 면적으로 연간 51%의 공산액 (industrial products)과 56%의 수출입과 89%의 첨단기술산업액과 49%의 세금과 17%의 취업 자리를 창출하였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상하이시는 외자가공업 프로그램이 23,596개를 끌어들이고 상하이의 가공업은 최초로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그리고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하여, 자동차. 강철. 선박. 장비. 화공. 정보 및 생물의학 등 주요 선도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었고 상하이에 관리인력의 자질과 기업의 관리수준도 높아졌다.

36) 수출주도형 전략(出口導向貿易政策): 이 전략은 국제경제 환경에 부응하여 국민경제의 부존자원(노동력)을 활용하며 그 부존자원이 희박한 천연자원과 자본의 부족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37) 수입대체형 전략(進口替代政策): 수입대체 정책은 정부가 국내 공업품의 생산을 촉진 시키려고 어떤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취하여 점차 국내시장에 외국수입품을 대신에 국내제품이 판매하여, 본국의 공업을 발전이 유리한 환경을 창조하고 공업화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2) 중점적으로 세계 500대기업을 유인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1984년 상하이시는 산업구조와 선도제품을 조정하기 시작하여, 주로 자동차, 정보통신 시설, 인터넷, 석유화학, 강철, 가정용전기 등 쪽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국내 기타 지역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하이시 정부는 세계 500대 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하였다. 2007년까지, 세계 500대 기업은 이미 257개 상하이에 와서 투자하였고 약 1884개 투자 프로그램을 달성하여 중국 전체 투자 프로그램의 47%를 차지하였다. 특히 금융, 보험, 무역 등 현대화 서비스 산업에 500대 외국투자자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

(3) 외국 기업의 본점을 유치하여 도시의 종합기능 강화

21세기에 들어 와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조점됨에 따라 상하이시는 외자를 도입하는 질량과 수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상무 자본이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부단히 토지, 에너지 등의 병목현상이 갈수록 부각되었다. 상하이시는 다국적기업의 본부 특히 경제기구가 상하이에 설립하도록 격려와 지지를 하였다. 몇 년 간의 노력 끝에 그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다. 2007년 말까지 상하이에 입지한 다국적기업 본부 경제기구는 모두 593개였다. 상하이시는 중국에서 홍콩을 제외하면 다국적 기업 본부 경제기구가 최고로 많은 도시다.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국제기구의 유치는 훌륭한 경제적인 효과와 수익을 갖고 있어서 상하이 세수를 증가시켰다. 이 기구들은 대부분 푸동특구에 결집하였다.

다국적기업 지역의 본부가 한 곳에 모임에 따라 대량의 전문 서비스 요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식형 외자 서비스회사들이 들어오게 되어 상하이의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중개 산업, 전시 컨벤션 산업, 물류 등 현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4) 아웃소싱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자를 이용하여 현대화 서비스산업 추진

WTO에 가입 이후, 상하이시는 현대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회를 잡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 산업을 발전시켰다. 푸둥특구는 상하이시의 4대 아웃소싱 시범구의 이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웃소싱 회사들을 포함한 다수 외자기업을 끌어들였다.

현재 세계에서 6대 전문 아웃소싱회사 중 IBM, EDS, ADP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 액센츄어(埃森哲)등 5개사가 이미 상하이에 투자하고 있으며 IBM,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의 본점이 상하이에 있다. 2007년 상하이시는 아웃소싱 수출액이 약 11억달러를 달성하였고 그중 ITO³⁸⁾는 약 9억달러를 차지하였으며 BPO³⁹⁾가 2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아웃소싱 산업으로 상징되는 서비스산업을 대외 개방하여, 상하이의 서비스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유치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푸둥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유인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법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33%인데, 푸둥특구에 진출한 기업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중국에서 획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한다.

더불어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종업원 고용 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외자의 모집자유를 부여하고 개별적 고용개약을 인정하여 해지의 자유도 보장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GM, IBM, GE, 알카텔, 시티뱅크 등 70여개 다국적 기업은 물론 6천여개의 중국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하고 있으며, 한국도 70여개 기업이 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상하이는 향후 4개 개발구를 중심으로 생산, 금융 및 교역의 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4개 지역별로 첨단 가공산업과 환경친화적 산업위주로 유치대상을 차별화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8월 29일에 준공된 상하이 세계금융센터는 금목(金貿大夏)빌딩 대신 중국의 제일 높은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세계 박람회가 상하이에 열릴 예정이며 2009년 4월17일까지 모두 234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이 박람회에 참여할

38) 정보 기술 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ITO)은 고객에게 기술 관련 활동을 아웃소싱하도록 한다. 그것은 데이터 센터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코드 개발, 그리고 모든 형태의 IT 관리가 포함될 수 있다.

39)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란 업무 처리 전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겨, 기업과 아웃소싱 업체가 힘을 합쳐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내는 아웃소싱 방식이다

것이다. 지금까지 100여개 넘는 최고급 국제금융기구·글로벌 500대기업(Global 500)·중자기구 등의 본부는 모두 루가쥬(陸家嘴)에 입지하였다.

2009년 3월 25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국제금융 중심, 국제물류 중심의 의견'⁴⁰⁾이하'의견'이라함) 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상하이의 부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2020년까지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정책 승인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세계 금융과 물류 중심을 두고 중국 내 베이징, 톈진 등 지역 경쟁이 치열했으나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이는 상하이의 금융 및 물류 중심으로의 부상이 지역 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략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상하이를 금융 및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이 몇 년간 여러 차례 계속돼 왔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 제시는 처음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표Ⅲ-15> 푸둥특구의 주요 경제 지표

	항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구	총인구(만명)	172.74	176.67	180.88	184.8	187.55	191.14	194.28
GDP	GDP (억위안)	1251.16	1503.88	1789.79	-	-	-	3150.99
	GDP성장률 (%)	16.7	17.5	16.4	-	-	-	11.6
공업 생산	공업생산 총액 (억 달러)	2190	2588.9	3519.71	4241.04	4741.04	4759.95	5649.22
투자	전사회고정 자산투자	586.61	602.16	651.94	693.61	659.97	784.1	872.68
재정	재정수입 (억위안)	202.63	296.12	402.23	-	-	-	370.3
수출입	수출입액 (억 달러)	368.98	581.32	808.07	-	1073.11	1280.52	1449.59
외국인 직접 투자	계약액 (억 달 러)	26.86	28.75	32.24	56.54	48.43	49.49	49.93
	실행액 (억 달러)	18.47	18.01	23.78	31.11	32.2	33.06	34.35

40) 이하'의견'이라한다.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과 과제

1. 개관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는 21세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고 시장중심의 경제원리가 적용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 문화, 금융 등에 있어 수요자 위주의 제도가 갖추어진 삶의 질이 윤택한 곳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즉 국제자유도시는 일반적으로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활동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말한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유항, 무역자유지역, 수출자유지역 국제 금융업무 자유지역, 경제특구 등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목적은 진보적인 경제시스템을 수립하고, 고용창출, 선진 경영기업의 도입 및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다. 또한 제주도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 금융 및 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63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중국이 80년대 말부터 국외 정치·경제 분리를 통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1993년 UR(Uruguay Round) 타결 및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출범으로 경제개방화와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국가간 시장원리에 입각한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02년부터 NO VISA, NO TAX 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기업하기에 가장 자유로운 환경을 갖춘 국제자유지역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전략지역으로 개발하여 외국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자 하는 21세기의 국가전략이며 생존전략이기도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작은 국내시장, 부족한 부존자원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 지역들을 벤치마킹

하였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전략은, 한국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경제 자유화 시범지역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정보화, 도민의식의 전환 등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이 지닌 유, 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제주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 향후 수립될 분야별 발전,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실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특징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동북아 지역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맑은 친환경과 한라산, 해변 등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 등 가지고 있으며, 관광과 휴양지로서 매력을 갖춘 지역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는 상하이, 도쿄 등 동아시아 주요도시에 인접한 중심적 위치로서,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인구5백만 이상도시가 18개나 위치하고 있어 매우 큰 배후시장을 가진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은인구와 경제규모는 작지만 법 제도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항, 항구, 도로 등 비교적 양호한 사회간접자본 SOC(Social Overhead Capita)를 구비하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⁴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립 및 국립대학 관광대학 등을 포함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 처음 이루어진 1999년말부터 2000년 초까지 중앙정부에 의하여 제시된 내용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주자치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한다는 것이 제시되었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구축도 제주권 발전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

41) 강윤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p. 14, 2003.

정을 거쳐 마침내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7849호 공포"됨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탄생하였다. 그 추진과정은 이하의 <표Ⅲ-16> 와 같다.

<표Ⅲ-16>추진과정

년도	내용
1998.9.28	대통령 제주 순시시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침 표명
1999.8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2000.12.30	국제자유도시추진전략 국무회의 보고
2001.1.31	건설교통부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발족
2001.8.17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02호) 제정
2001.9.19	국무총리소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발족
2001.12.2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02.1.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6643호 공포
2002.4.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03.2.1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2004.3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수립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 7849호 공포
2006.12.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고시
2007.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 보완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제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화, 개방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원과 지식이 융화된 제주로 발전⁴²⁾하는 것이다. 3대 발전축은 관광교육의료축, 그리고 MICE축, 그리고 ITBT축이다.⁴³⁾ 이를 표로서 요

42) 김남형,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 23, 2006.

약하면 다음의 <표Ⅲ-17>와 같다.

<표Ⅲ-17> 국제자유도시 출범시의 목표(2004)

목표	내용
기본 목표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 복지 등 향상
3대 발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교육, 의료’ • ‘MICE(기업회의, 보상, 컨벤션, 전시)’ • ‘IT, BT(정보통신, 바이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입단계, 성장과 발전단계, 성숙과 정착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1단계 : 도입단계 (2002년 ~ 2003년)

1999년 9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2003년 말까지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7개 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 확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본 그림을 그린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였다.

43) 그러나 현재 이명박대통령의 당선이후로는 이러한 3대발전축이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일부 중첩되고, 베제디면서 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완만히 그러나 꾸준히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표Ⅲ-18>7개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비	주요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제주 아라동 일원	1063천 m^2 (322천평)	4,011 억원	다양한 생물자원, 청정 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기술 집적형의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조성
중문관광단지확충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관광 단지내	100천 m^2 (30천평)	약200~3000 억원	중문관광단지 시설 확충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원	57.85 천 m^2 (17.5천평)	1,250 억원	서귀포항의 수려한 자원경관을 활용, 관광 미항으로 재개발,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명소로 조성
휴양형주거단지개발	서귀포시 예례동 일원	728천 m^2 (220천평)	4,366 억원	청정환경과 기후 조건 등을 활용하여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시설로 개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제주시 도두2동 일원	324천 m^2 (98천평)	2,200 억원	제주공항 인근에 1차상품, 첨단제품의 가공, 수출촉진과 항공물류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쇼핑아울렛개발	북제주군 애원읍 서부관광 도로 인근	약 5만평	731 억원	세계적 수준의 명품 쇼핑아울렛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남제주군 대정읍 일원	174만평	1조 9,195 억원	제주의 신화, 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간 의식차이 분석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이호병, 이형욱)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2)2단계 : 성장과 발전단계 (2004년 ~ 2007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유치와 실질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공항과 항만, 도로를 확충하고 1차 산업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7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투자의사를 밝힌 국내외 기업체는 26개 사업에 11조 44억원인데 이 액수는 중문 관광단지에 투자된 금액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3)3단계 : 성숙과 정착단계 (2008년 ~ 2011년)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제주를 찾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제주로 이어진다. 2011년 도민소득 2만 달러,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될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대발전축과 더불어 수행되어야 하는 7대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제1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7대 프로젝트에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다. 2단계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3단계에 이르러,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를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표Ⅲ-19> 제주국제자유도시 단계별 주요목표와 프로젝트

시간	기본목표	추진프로젝트
1단계 2002년-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7개 선도프로젝트 	7개 선도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 쇼핑아울렛 개발 •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2단계 2004년-2007년	공항과 항만, 도로를 확충하고 1차 산업분야를 육성 발전 시킴	-
3단계 2008년-2011년	세계적 제주관광도시 만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핵심프로젝트 • 신화·역사공원 • 헬스케어타운 • 첨단과학기술단지 • 서귀포관광미항 • 영어교육도시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전략 프로젝트 • 쇼핑 아울렛 개발 • 중문관광단지 확충 • 제2첨단과학 기술단지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 생태공원 조성사업

<표Ⅲ-20>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면적	투자규모(억원)	추진상황
신화·역사공원	4,043천 m^2	14,884	사업착공: 07,12
헬스케어타운	1,44천 m^2	3,150	사업착공: 09하반기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천 m^2	4,274	완공 및 입주: 08하반기
서귀포관광미항	198천 m^2	1,430	사업착공: 07,12
영어교육도시	4,258천 m^2	7,850	사업착공: 09상반기
예래휴광형주거단지	744천 m^2	26,000	사업착공: 07,10

핵심 프로젝트 외에도 최신 관광 추세와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Ⅲ-21> 5대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쇼핑 아울렛 개발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의 요구에는 맞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형 쇼핑시설을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중문관광단지에 1단계 상업시설과 2단계 해양공원 조성을 통해 제주도의 대표적인 종합위락단지로 육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제주공항 인근에 1차 상품, 첨단제품 등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주 오름의 경관 및 생태를 보전하면서 체험·학습·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

2.입법·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있어 각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은 국제의 투자자본의 유치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치도는 여러 법례를 신설하여 투자유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입법과 제도를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과학 단지를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개요

(1)배경 및 환경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국내외 투자 자본에 대하여 차별 없이 국내의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이다. 이제도는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적으로는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등 과 국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 황해(평택·당진), 새만금, 군산, 대구·경북 6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치열한 투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2)제주투자진흥지구의 변천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투자진흥지구지정)의 신설과 함께 도입되었다..

총산업비 및 대상 업종을 최초 규정한 것은 2002년 3월인데, 그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제2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가 신설되어 8개 업종 미화 2,000만불(또는 1,000만불)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00만불이상 투자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과 국제화의

시설업이며, 1,000만불 이상 투자사업은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과 종합유원시성업이다.

2004년 7월에는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이 개정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으로 총사업비1,000만불 이상으로 통일이 되고, 업종도 8종에서 13종으로 5개 업종(문화산업, 노인복지,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사업 및 퀘도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추가되었다.

2006년도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 개정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로 옮겨졌다.

그리고 2006년6월에는 총사업비 및 대상 업종 개정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총사업비가 미화 500만불로 통일 되고, 대상 업종도 13개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 되어 19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11월에는 대상업종 확대가 있었는데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추가로 모두 2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이 하향조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개정으로 심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국무총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제주도지사)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주요 업종 및 지정기준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주요업종 및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및 퀘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국내외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투자진흥지구내 주요 업종이다.

그리고 관광식당업(관광객에게 한국전통음식 또는 특징 국가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도 포함된다. 업종지정시의 지정기준은 투자금액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Ⅲ-22>와 같다.

<표Ⅲ-22>주요 업종 및 지정기준

업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식도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국내외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 관광식당업(관광객에게 한국전통음식 또는 특징 국가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36조 • 투자금액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

2) 첨단산업과학단지

건설교통부는 2004년10월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7대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자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아라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95천㎡(331천평)이다. 사업비는 4,001억원(공공 1,389억원, 민간 2,612억원)이고, 연구개발기능은 IT관련 정보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과 BT관련 생물화학, 정밀화학산업이 입주하고 관련연구소들이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전문대학원, 외국어학교 그리고 기업 연수시설로 교육 훈련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이자 혜택은 단지의 구성에 있어 정부가 창업보육센터, 주거 및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제주첨단산업과학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자가 되어 2011년까지 약 5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목표는 다양한 생물 자원,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연구 등 기술집적형의 지식 기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1).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공장)중 입주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하여입주가 가능하며, 이에 덧붙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관련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

(2). 입주업종

입주업종은 첨단, IT, BT업종과 연구개발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있다.

(3). 입주제한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 업종 기타 특정유해물질, 악취 VOC물질 등을 사용·배출하는 시설은 이주가 제한된다.

3)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외국어 서비스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

자치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44)



44)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6조

3. 투자유인제도

1).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

(1) 출자총액제한 제외의 적용예외

제주지역의 대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사업 및 제주첨단과학단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2007년 7월 3일 제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2007년 7월 2일 현재 실제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집단은 11개 기업집단 399개 계열회사이다. 전경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추가투자 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의 기업도 출자총액제한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증액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조세혜택

제주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투자지원 조세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의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관세,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이 그것이다.

각각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금씩 상이하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의 내·외구인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혜택을 받고 관세는 초기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를 받게 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는 100%면제, 재산세는 10년간 100%면제를 된다.

각종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00%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50%감면혜택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는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범위내 까지 감면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에 연수원, 교육원 건립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특별자치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10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수입자본에 대한 관세가 되고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감면된다.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에서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자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에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적용하게끔 개정 되었다.

또한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도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이 신설되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비해 관세면세의 혜택은 제외되었다.⁴⁵⁾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투자지구에 따른 투자지원세제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Ⅲ-23>와 같다.

45)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에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신설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가 있다.

<표Ⅲ-23>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구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세제

구분	조세감면내용
투자진흥구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⁴⁶⁾ -취득세·등록세: 면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자본재 3년이내는 100%면제 -재산세 등: 10년간 100% 면제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 임대: 50년 이내 (갱신 가능) 임대료 75% 범위 내 감면
지	-관광, 문화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총사업비 500만불 이상
외국인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 면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초기3년이내는 면제 -재산세등 :15년간 100% -국·공유지 임대: 50(갱신 가능), 임대료 100%범위 내 감면
투자지역	-고도기술산업연구소: 5백만불 이상 투자, 10인 이상 상시고용 -물류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제조업: 3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5백만불 이상, 석사연구원 10인 이상 SOC 사업: 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 관광, 물류, 연구시설(투자규모와 무관)

출처: 김동욱 (2009), "제주도 전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p. 45, 재인용

46) 정부는 2008년 제주특별법 제 3단계 제도개선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 100%면제, 2년 50%감면에서 5년 100% 면제, 2년 50%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의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신설되어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으로 개정하였다.

2) 외국인 투자지역의 세제혜택

외국인 투자지역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고도기술 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5년 100%, 그 후 2년 50%로 감면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15년간 100% 면제한다. 등록세·취득세 및 수입자본채에 대한 관세는 면제한다. 국·공유지 임대는 50년 이내 (갱신가능), 임대료 100% 범위 내 감면한다.

<표Ⅲ-24>조세감면 내용

조세감면대상	대상감면기간	감면요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외투자지역	국세(법인세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년감면 (5년 100%, 2년 50%)	개별형 외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R&D : 2백만불
- 단지형 외투자지역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년감면 (3년 100%, 2년 50%)	제조업 : 1천만불 관광업 : 1천만불 물류업 : 5백만불

<표Ⅲ-25>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도 투자진흥지구간의 세제혜택에 비교

구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국세 (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100%가 면제	10년간 100%가 면제

그리고 입지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범위내 이다. 이는 지원주요 내용은 아래 <표 III-26>와 같다.

<표III-26>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대용지 지원 용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권 : 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가 75%, 지자체 25%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대상	감면내용	
	개별형 외투지역	100%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5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조례로 정함			
분양가차액 보조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액보조 (분담률은 임대용지 지원과 동일)		

또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에 상응하여 지자체는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는데, 현금 지원은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한다. 교육훈련 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한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한다. 이 재정지원을 요약하면 아래 <표 III-27>와 같다.

<표Ⅲ-27> 재정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이에 덧붙여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은 면제하여⁴⁷⁾ 외국인투자 지역내 시설물 등의 건축에 관한 교통 유발금을 면제한다.

47) 2008년까지 한시적 조항

4. 계획

2005년 한국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4대 핵심산업(관광·청정 1차산업·교육·의료)과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육성방향이 제시되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계획

범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설립되고, 추진방향이 제시된 다음 제안된 것은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다. 추진전략은 3개의 발전축으로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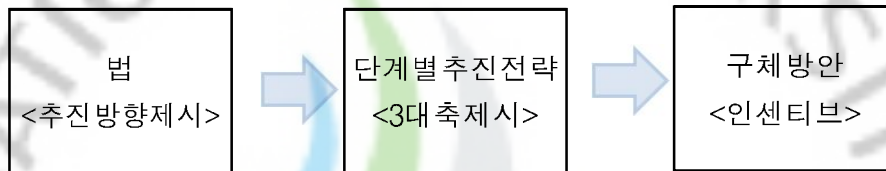
제주권 발전계획의 구체적 전략은 ‘관광·교육·의료’와 ‘MICE(기업회의·보상·컨벤션·전시)’, ‘IT·BT(정보통신·바이오)’ 등의 3대 산업발전축을 기반 삼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3대축은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적인 개발거점도시가 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3대 발전축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Ⅲ-1>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계획



출처: 제주의 소리

이상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경과, 그리고 그 전략과 구체방안들이 제시된 절차를 보면, 우선, 국제자유도시를 선포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되었고, 이 법안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제안되었고, 3대축이 제안됨으로서 제주의 개방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어떤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지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즉, 법인세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그림Ⅲ-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절차

이하에서는 절차 중, 구체방안으로 제시된 1단계의 7대 선도프로젝트와 3단계의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사귀포관광미항 개발, 휴양형주거단지개발 단지가 선정되었다. 이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추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타 산업부문에 얼마나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가에 따라 선정된 7대 선도프로젝트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핵심프로젝트, 전략프로젝트로 구분된다.

<표Ⅲ-28>7개 선도프로젝트 주요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비	주요내용
제주첨단 과학기술 단지조성	제주 아라동 일원	1063천 m^2 (322천평)	4,011 억원	다양한 생물자원, 청정 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기술 집적형의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조성
중문관광 단지확충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관광 단지내	100천 m^2 (30천평)	약 200~3000 억원	중문관광단지 시설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원	57.85 천 m^2 (17.5천평)	1,250 억원	서귀포항의 수려한 자원경관을 활용, 관광 미항으로 재개발,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명소로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서귀포시 예례동 일원	728천 m^2 (220천평)	4,366 억원	청정환경과 기후 조건 등을 활용하여 주거, 레저, 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시설로 개발
제주공항 자유무역 지역 조성	제주시 도두2동 일원	324천 m^2 (98천평)	2,200 억원	제주공항 인근에 1차상품, 첨단 제품의 가공, 수출촉진과 항공 물류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쇼핑 아울렛 개발	북제주군 애원읍 서부관광 도로 인근	약 5만평	731 억원	세계적 수준의 명품 쇼핑아울렛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생태신화 역사공원 조성	남제주군 대정읍 일원	174만평	1조 9,195 억원	제주의 신화, 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

출처: 이호병·이형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간 의식차이 분석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핵심프로젝트는 단·중기적 검토 및 추진이 프로젝트, 정상추진 프로젝트와 신규프로젝트 중·단기적으로 중심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며, 그 각 사업명은 다음과<표Ⅲ-29>와 같다.

<표Ⅲ-29> 제주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면적(1000 m ²)	투자규모(억원)	추진상황
신화·역사공원	4,043	14,884	사업착공: 07,12
헬스케어타운	1,44	3,150	사업착공: 09하반기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	4,274	완공 및 입주: 08하반기
서귀포관광미항	198	1,430	사업착공: 07,12
영어교육도시	4,258	7,850	사업착공: 09상반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4	26,000	사업착공: 07,10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⁴⁸⁾

관광산업 외에는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지식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제주지역의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하여 생물자원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②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는 휴양·주거·의료기능이 조화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으로 휴양을 성장거점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휴양형주거문화 형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 및 관광객 체류기간 연장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48) 이하의 핵심프로젝트 서술내용은 200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pp, 231-232 참조하였다.

③신화·역사공원 조성

이 프로젝트는 제주지역의 자연을 이용한 보여주기식 관광형태에서 탈피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설정된 프로젝트이다.

제주지역의 신화 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총3개지구로 구분하여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④서귀포 관광미항

이 사업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함으로써 제주지역내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해안매립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관광미항으로 정비하되 문화재영향을 최소화하여 추진한다.

⑤제주 헬스케어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인 의료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자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건강을 핵심테마로 하는 건강검진, 재활, 휴양기능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 헬스케어(건강검진센터, 대체의학 및 재활센터, 건강식품, 재활교육 등), 휴양(리조트스파,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 위락(생태공원, 삼림욕장) 및 첨단 의료서비스 기능을 결합시킨다. 특히, 첨단의료분야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병원, 연구소, 임상기관 등을 집적시키고 장기적인 재활치료 및 노화예방 등을 위해 치료, 주거·휴양시설, 교육 등을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 치료, 재활, 휴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주만의 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구시설들을 집적시킨다.

⑥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조성

교육내용과 제주환경을 해당국가와 유사하게 제공하는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스타운 조성은 내국인과 동북아시아인의 영·미권 유학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통합형 초·중·고 국제학교 유치(비영리 사업), 어권별(영어, 중국어, 일어) 문화체험 마을 설립(영리사업), 세계 우수 기능대학 유치(프랑스 꼬리뱅 요리스쿨, 스위스 호텔학교, 이태리 패션스쿨 등), 미국 및 영국의 우수대학교 분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전략적프로젝트는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 기존추진 미흡 프로젝트와 신규프로젝트를 포함하며 각 사업명은 <표Ⅲ-30>와 같다.

<표Ⅲ-30> 5대 전략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쇼핑 아울렛 개발	중국·일본 등 해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의 요구에는 맞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형 쇼핑시설을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중문관광단지에 1단계 상업시설과 2단계 해양공원 조성을 통해 제주도의 대표적인 종합위락단지로 육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제주공항 인근에 1차 상품, 첨단제품 등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주 오름의 경관 및 생태를 보전하면서 체험·학습·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

①쇼핑아울렛⁴⁹⁾

이 사업의 목표는 국내·외 관광객의 신규 쇼핑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제주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제주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쇼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다. 명품브랜드점, 유명브랜드점, 편의시설(공원, 휴게소, 주차장, 화장실, 패스트푸드점 등)등으로 시설을 구성하되 지역상권 활성화방안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②생태공원

생태공원은 제주의 오름, 오름의 경관, 오름의 생태를 보전·이용하는 공공 자연공원, 자원 보전의 기능과 함께 체험, 학습,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원, 제주의 오름을 보전, 연구, 홍보, 활용하는 메카로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오름 및 주변 생태·경관을 유지·보존하고, 체험, 학습, 관찰, 연구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미하되 공공투자 위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중문관광단지 확충

개발 담보 상태인 중문관광단지에 상업시설과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위락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표이다. 전무상가, 면세점, 해양수족관, 해양전시관 등을 개발한다.

동부지역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용도변경후 추진한다.

④공항자유무역지대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물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

49) 이하의 전략프로젝트 서술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4+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2006. pp. 233-234를 참조하였다.

무역을 조성한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⑤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입주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한다. 기존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웰빙테마타운, 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형 산업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5. 성과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현황

2005년 7월 동물테마파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3월 말 라온 테마파크까지 9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었고, 폴로승마랜드, 한라힐링파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KAIST 연구단지 등이 승인 준비 중에 있다.

2008년 3월말 현재까지 9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되었고, 총투자규모는 약 2조 600억원 투자가 예정되었다. 또한 향후 4개 사업이상이 심사예정이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등 9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조세·부담금 등 1,559억 원을 감면받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민자유치 실적은 2006년 10월 현재 54개 사업에 10조 6,521억원, 외국인 투자가 4개사업에 3,540억으로 달성했다.

<표Ⅲ-31>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장(2009년 3월31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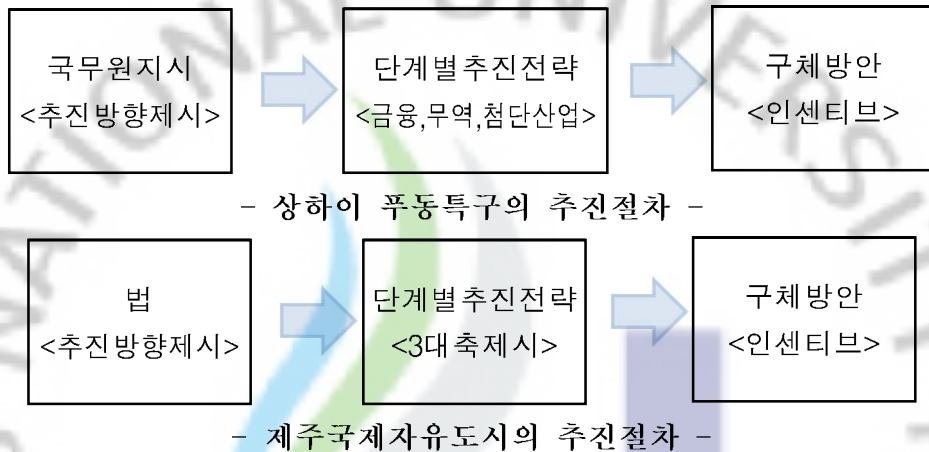
	투자진흥지구	지정날짜	투자금액 (감면금액)	면적	투자내용
1	동물테마파크	05.7	560억원 (감면액: 82억원)	510천 m^2 (0.51 km^2)	생태동물원, 식물원, 승마장, 가축생태박물관, 가족호텔
2	비치힐스리조트	06.11	3,322억원 (감면액: 208억원)	1,989천 m^2 (1.989 km^2)	동물원(사과리농원), 연구원, 호텔, 콘도, 미술관, 공연장
3	해비치리조트	07.6	1,749억원 (감면예상금액: 124억원)	26천 m^2 (0.026 km^2)	호텔(289실), 부대시설(연회장, 레스토랑)
4	나비·곤충·어류박물관	07.6	167억원 (감면예상금액: 18억원)	27천 m^2 (0.027 km^2)	전시장, 방사장, 미로형 체험학습장, 야외공연장 등
5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07.12	4,366억원 (감면예상금액: 306억원)	743천 m^2 (0.743 km^2)	휴양형 주거단지, 카지노
6	성산포(섬지지구) 해양관광단지	08.4	3,870억원 (감면예상금액: 266억원)	631천 m^2 (0.631 km^2)	수상테마파크, 수상호텔, 해중공원
7	묘산봉 관광개발	08.4	6,664억원 (감면예상금액: 427억원)	2,575천 m^2 (2.575 km^2)	요트계류장, 골프장, 연수원, 자연생태박물관, 조각공원
8	새마을 금고제주 연수원	08.12	310억원 (126억원)	49.5천 m^2 (0.0495 km^2)	연수원, 축구장, 농구장
9	라운더마파크	09.3	233억원 (24억원)	202천 m^2 (0.202 km^2)	국제승마경기장, 실내마장, 세계명마관람장, 공연장
승인준비중	폴로승마랜드		232억원		폴로경기장, 승마장
	한라힐링파크		497억원		기구역사박물관, 연수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거호텔		2,847억원		호텔, 콘도형 레지던스
	KAIST 연구단지		1,000억원		연구시설, 연구단지

출처출처: 김동욱, 「제주도 전지역 투자진흥지구 지정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p. 48, 2009년, 재인용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 정책의 비교

1. 전체개발절차의 상호비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절차와 푸동특구의 추진절차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절차와 푸동특구 추진절차의 비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의 추진절차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처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은 달랐다. 즉, 상하이 푸동특구는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 즉,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의 방향이 정해졌고,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먼저, 법을 수립, 선포하고 그 법안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3단계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상하이 푸동특구는 금융, 무역, 첨단산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전략을 수립한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구체방안에 있어 두지역 모두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정책을 수립하였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센티브 정책의

구체성과 상세성은 상하이 푸동특구가 더 높았다.

2. 추진전략과 개발목표의 비교

단계별 추진전략의 내용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산업육성에 가장 중요성을 많이 두었는 가이다. 앞서 <그림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에, 그리고 상하이 푸동지구는 첨단산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개발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주로 개발 목표는 다른 경제특구, 관광특구, 지역특구와의 차별화되는 기존 물류와 금융이 포함된 복합기능 개발에서 내·외국인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과 휴양도시 중심으로 특화시키다. 상하이 푸동특구는 주로 동북아시아의 금융·무역·물류 등 서비스업 경제특구도시 중심으로 지향한다. 이는 다음의 <표Ⅲ-32>에서 발전전략의 내용을 상호비교해보면 잘 나타난다.

<표Ⅲ-3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푸동특구의 발전 전략과 우대조치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상하이 푸동특구
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 •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 • 세계평화의 섬 지정으로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의 금융+무역+물류 등 서비스업 중심 지향 • 장강은 용의 몸통, 상하이시는 용의 머리, 푸동지구는 용의 눈에 비유함

다음으로 단계별 목표를 비교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는 상당히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3단계중 2단계에만 계획되어 있지만, 상하이 푸동지구는 3단계모두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목표되어 있었다. 이는 3단계 내내 지속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기반시설의 마련이 상하이 푸동특구에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차이점은 각 단

계별 추진기간이다. 상하이푸동특구는 각 단계가 5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각 단계가 2년에서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간접자본확충만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표Ⅲ-33>에서 단계별 목표 내용을 상호비교해보면 나타난다.

<표Ⅲ-33>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의 단계별 발전목표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상하이 푸동특구
단계별 목표	1단계 도입단계 (2002년 ~ 2003년) 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7개 선도프로젝트 계획	1990-95 5년간 도로, 교량, 발전소, 항만, 보세구 건설로 외국인 투자 인프라 정비
	2단계 성장-발전단계 (2004년 ~ 2007년)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유치와 실질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공항과 항만, 도로를 확충하고 1차 산업분야를 육성 발전시킴. 7대 선도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	1996-2000 5년간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정비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구, 금융센터 제1기 공사
	3단계 성숙-정착단계(2008년 ~ 2011년)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6대 핵심프로젝트와 5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	2001-20~30년 상하이시의 전면적개발 완성푸동지구와 구도심을 양축으로 상하이시를 세계적인 금융, 무역, 정보산업의 중심지와 수출항형 현대적 생산기지로 전환)

3. 구체방안비교

1) 인센티브제도 비교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는 모두 갖추어

저있지만 자체히 보면 차이점이 존재한다. 상하이 푸동특구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감면 제도는 업종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업종에 있어 무차별화하다. 즉, 덜 구체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년간은 100%, 그 후 2년간50%감면하고 관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제주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 외국에서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반면 상하이 푸동특구의 법인세감면제도는 자세하고 다양하다. 생산형 기업은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고, 그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인프라형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면제받고 그후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그리고 금융형 기업은 법인세를 1년간 면제받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출기업과 선지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 우대한다. 지방소득세도 3% 감면한다. 생산설비, 원재료 송금세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환급 기납 부금액의 40%를 감면하고 제품수출과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00% 면제한다.

즉, 다시 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인센티브제도와 상하이 푸동특구 인센티브제도의 차이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에 집중하여 재정지원이 되었다. 둘째, 연구기관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기업들의 산업연관이 고려되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획기적인 재정지원책

생물의약, 과학기술 제품 등 생산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특구지방에 재정적 기여한 경우 해당금액만큼 2년간 100%를 환급해 주고 그 후 3년간 50%를 환급해 준다.

그리고 그중 중요한 생산기업은 선별 후 부가가치, 영업수입, 이윤총액이 특구의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만큼 3년간 100%를 환급해 주고, 그 후 3년간 50%를 환급해 준다. 그리고 생물의약, 집적회로, 반도체장비제조 등 중요한 생산기업은 푸동특

구에서 사무용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특구에 납부한 토지매도금의 100%를 환급해준다. 또한 새로 들어온 중대한 산업프로그램의 건설기간에는 고정자본투자에 대하여 대출한 대부금의 인민폐부분에 대하여 특구가 그 대출이자는 3년간 보조한다. 주식증자에 대한 지원도 있다.

중요한 생산기업이 증자해서 주식을 늘리는 비율이30%까지 확대되고 증자금액이 2,000만원이상 8,000만원이하이며 실현된 부가가치가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00% 환급해 주고 그 이후 1년간 50%를 환급해 준다. 그리고 이윤총액에서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0% 환급해 주고 이후 2년간 50%를 환급해 준다. 증자액이 8,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실현된 부가가치중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00% 환급해주고 이후 1년간 50% 환급해 준다. 이윤총액은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 2년간 100%환급해주고 이후 3년간 50% 환급해 준다. 특히 중요한 생산기업이증자하여 주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을 조사한 비용, 행정업무비용, 등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준다.

그 외에 도시계획과 토지사용 계획에 적합한 조건에 특구생산기업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추가한 토지매도금은 허가받으면 어느 정도한 보조금을 준다.

2)연구기관의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독립정산하는 연구기구는 실현한 부가가치, 영업수입, 이익총액으로 형성된 특구 지방재력의 부분은 3년에 100%의 수당을 주고 이후 3년간 50%를 준다. 새로 수입한 국가급,시급 및 구급기업기술개발기구는 허가 후 상황에 따라 한꺼번에 80만원-500만원의보조금을 준다.

생물의약기업은 새로운 약을 개발한 과정에 발생한 연구비용이 그리고 임상연구 공문을 받고 특구과학기술금은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신약증서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50만원-500만원의 임상연구비용을 준다. 또 신약 신청비용, 검사비용 등 5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소프트웨어를 생산, 시스템 집성, 응용서비스등 소프트웨어산업은 발생한 제품 실험, 등록, 인정 등 비용은 특구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유입한 첨단과학기술기업은 그 실현한 부가가치가 특구지방재력이 형성된 부분은 1년에 100% 보조한다. 이윤총액으로 형성된 특구지방재력부분은 1년에 100% 수당 후 2년에 50%수당을 준다. 그리고 그중 자주 지식산권을 가진 첨단기술기업은 실현한 부가가치로 특구의 지방재력부분은 2년에 100% 환급하고 이후 3년간 50% 환급한다.

자주지식재산권을 가진 첨단기술성과가 프로젝트로 전환하면 위에 있는 우대정책을 누린 후 실현한 부가가치가 특구재력으로 형성된 부분은 2년간 100%를 수당하고 이후 1년간 50% 환급해 준다.

새로 개발한 신제품은 인정을 받고 실현한 부가가치가 특구재력을 된 부분은 2년간 100% 보조한다. 그리고 특구생산기업은 외국에 선진기술을 유입하여 지불한 비용이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은 100% 환급한다. 또한 특구생산기업은 중요한 제품(프로젝트)을 기술개선 지불한 은행대출이자는 허가를 받고 1년에 기준대출이자율의 80%의 비율로 보조한다.

3)기업들의 산업연관을 고려한 지원정책

새로 유입된 선진기술을 사용한 첨단기술산업을 위한 외주기업이 실현한 부가가치,운영수입이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에 대해 2년간 100% 보조한다.

집적회로, 소프트웨어(軟件產品), 첨단장비등 전문디자인기업은 실현한 부가가치, 영업수입은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을 2년간 100% 환급한다. 이윤총액은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을 2년간 100% 환급하고, 그 후 2년간 50% 환급한다.

중요한 세트 생산기업은 실현 부가가치, 이윤총액은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이 2년간 50% 보조한다. 그리고 첨단기술산업을 위한 기술양성기구는 실현한 영업수입, 이윤총액은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에 대해 2년간 50% 보조한다.

4)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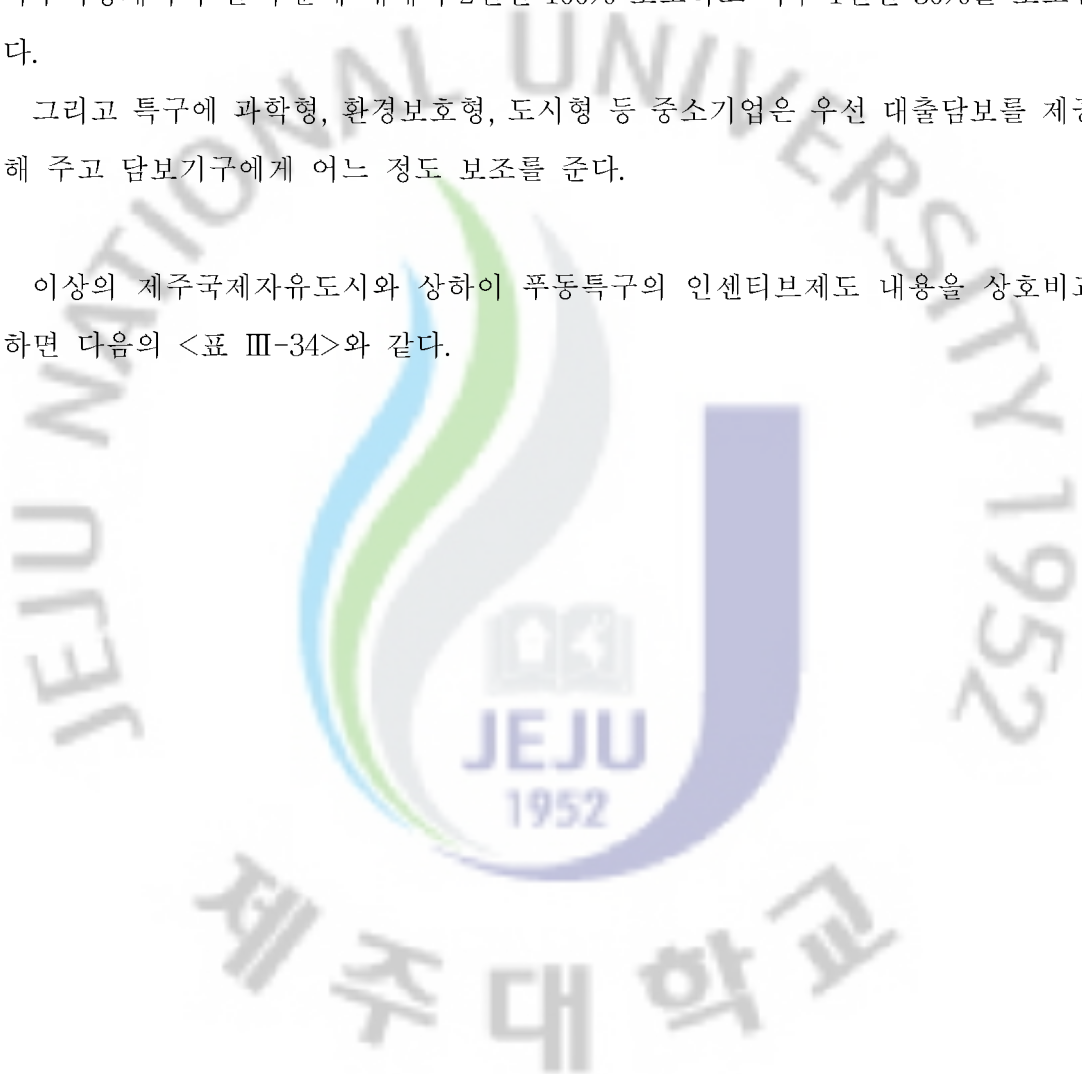
새로 유입한 벤처사(venture company)는 실현한 영업수입,이윤총액이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 3년에 50% 보조한다.

벤처사는 첨단기술창의적 산업을 투자하면 3간 실현한 영업수입, 이윤총액이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에 대해 50%를 보조하고 그리고 벤처사에게 10%의 장려금을 준다.

특구에 생태농업선업대, 수우조아(孫橋)과학농업산업대, 추우사아(川沙)현대도시농업생산시범구에서 새로 유입한 농산품연구,가공및 농업기업은 실현한 부가가치 특구지방재력을 된 부분에 대해 1년간 100%를 보조한다. 이윤총액으로 기준하여 특구지방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 2년간 100% 보조하고 이후 1년간 50%를 보조한다.

그리고 특구에 과학형, 환경보호형, 도시형 등 중소기업은 우선 대출담보를 제공해 주고 담보기구에 어느 정도 보조를 준다.

이상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의 인센티브제도 내용을 상호비교하면 다음의 <표 III-34>와 같다.



<표Ⅲ-34>푸동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업의 인센티브 정책 비교

구분	푸동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인세	생산형 기업: 2년간 면제, 3년간 50%	3년간은100%, 그 후 2년간50%감면
	인프라형 기업: 5년간 면제, 5년간 50%	
	금융형 기업: 1년간 면제, 2년간 50%	
	수출기업: 10% 우대	
	선진기술 기업: 10% 우대	
소득세	지방소득세: 3%	3년간은100%, 그 후 2년간50%감면
재산세	없음	3년간은100%, 그 후 2년간50%감면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생산설비, 원재료 등에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의 외국에서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송금세	면제	
기타	채투자에 대한 환급 기납부금액의 40%(제품수출, 선진기술기업100%)	없음

푸동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모두 기업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왜 기업들은 푸동특구에 많이 입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덜 입지했는가?

기업들이 푸동특구에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산업연관을 고려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상하이 푸동특구의 인센티브 제도는 산업연관된 기업들까지 고려하고 기업의 산업활동 고정전체를 고려한다. 즉 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과 관련된 기업에게도 혜택을 준다. 이로 인해 푸동특구에 더 많은 기업들이 입지하는 것이다.

기업은 조세, 부지만 지원한다고 오는데 아니다. 그들의 산업활동(life cycle)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상하이 푸동특구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표Ⅲ-35> 푸동특구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에 대한 정책

푸동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 인센티브 법인세감면제도가 구체적임	법인세 푸동특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하고 있음
산업연관 고려함	산업연관 고려하지 않음
기업들은 산업활동 고정전체 고려(물류도 고려함)	산업활동 고정 전체 고려하지 않음

2) 인재양성정책비교

다음으로 인재양성정책에 비교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상하이 푸동특구는 상당히 차이점이 나타난다. 즉 상하이 푸동특구는 인재양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내부인재 뿐만 아니라 외부인재, 글로벌 인재양성까지 생각한다. 외부인력에게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금융인력과 전문인력을 위하여 안거공정을 통해서 주거 환경부터 고려해 주고 녹색통도를 통해 이들의 가족과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주로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내지인력만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력유인책이 거의 없고 금융인력나 전문인력양성 유인책이 없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도내인력을 양성한다.

상하이 푸동특구 인재양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정부는 개방포용(包容), 격려창신(激勵創新), 숭상창업(崇尚創業), 활기에 찬 국제화 인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푸동특구에서 새로운 인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금융인재의 집결(集聚).

상하이정부는 금융인재의 유입을 격려함으로서, 푸동특구금융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상하이정부는 금융법인의 고급관리직인재와 전문인재의 공헌과 역할에 따라 격려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즉 금융기관에서 인재개발, 유입, 양성, 연구교류와 인재거주환경개설 등 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새로 유입한 은행·보험금융기관본사에게 한꺼번에 인민폐 1500만원(약 한국 26억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지역본사에게 인민폐 500만원을 지불한다.
- 특구에서 입찰 방식으로 자기용 빌딩을 건설하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새로 유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용 푸동특구에 납부한 토지매도금을 100%를 환급해 준다.
- 새로 유입한 은행·보험금융기관본사·지역본사에 대하여 푸동특구에서 사무용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가격의 3%를 환급해 준다. 사무용 주택을 임대할 때 3년간에는 임대료의 3%를 환급해 주고 후 3년에는 임대료의 1.5%를 환급해 준다.
- 기타 금융기관이 특구에서 사무용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가격의 1.5%를 환급해 준다. 사무용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1.5%를 환급해 준다.
- 새로 유입한 기타 은행·보험 금융기관 본사·지역본사에 고위의 관리자에게 한 명씩 1회 인민폐10만원씩 보조금을 지불한다. 기타 금융기관에 고위의 관리자에게 한 명씩 1회 인민폐 2만원씩 보조금을 지불한다.
- 새로 유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수입이 특구의 재정적인 힘을 된 부분은 3년간에는 100%를 환급해 준고, 그 후 3년간에는 50%를 환급해 준다.
- 특구에 '전문 교육기금'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고위의 관리자의 자녀의 교육에 지원한다.

그리고 다음의 4가지인재에게는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 금융기관에 새로운 들어온 고급관리요원에게 주택수당 또는 임대료수당 인민폐 20만원 보조금을 지불해 준다.
- 금융기관에 고위의 관리자에게 당해 특구금융기관 개인소득세 중의 40%를 보조금을 지불해 준다.
- 금융기관의 관리자와 전문 인원에게 특구금융기관 개인소득세 중 20%의 보조금을 준다.
-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고위적 관리자에게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직 관리자에게 해마다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나. 창조적 인재의 양성.

상하이정부는 창의적 인재의 유입을 격려함으로서, 푸둥특구의 자주 창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자주적 창신첨단기술기업, 과학연구기업, 연구 기관에 리더, 창업팀, 주요연구인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대형 회계사무소, 대형 인력 자원 서비스업중에 전문인력들은 공헌에 따라 의료, 보험, 주택 등에 대하여 혜택을 주었다.

라. post-doctor 제도의 적극지원

post-doctor 제도는 푸둥특구에 과학연구와 기술 창의연구를 격려하고 박사후 과학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과학연구를 서로 결합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이 post-doctor 한명씩 채용할 때 마다 인민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비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박사 후 연수 기관에서 단기 프로그램 연구를 하는 기업은 인민폐 3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해 준다.

마.安居공정(安居工程)프로젝트의 실행

安居공정(安居工程)프로젝트란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융자금 과 지방 정부의 자금으로 지은 후 원가로 판매하는 비영리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와 기업은 함께 인재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3년안에 3.7만벌, 230만 km^2 의 인재아파트를 만들고 인재아파트에 입주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요한 산업발전 필요에 의해 외지에서 들어온 인재는 인재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

- 정부, 기업과 사회는 함께 인재아파트를 건설하고, 3년간에 3.7만벌, 230만 km^2 의 각각 인재아파트를 만들고 인재아파트에 입주하는 인재를 보조금을 준다. 그리고 푸동특구에 중요한 산업발전요구를 맞는 외지에서 온 인재는 우선 인재아파트에 입주시킨다.
- 푸동특구는 고급인재들이 안심하게 푸동특구에 이사하기 위해서 일류 이중(TWO)언어 유치원등 교육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 금융기구에 근무한 젊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중등급 아파트를 제공한다. 금융첨단인재를 위해서 푸동특구는 임대할 수 있는 금융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통도'제도의 신설

외지에서 상하이로 이주한 인재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자녀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상하이 호적을 새로이 발급해 주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출신지이외의 지역에서 호적을 발급받는 것은 통상 어려운 일인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허가해준 것이다. '상하이시는 국내우수인재를 상하이에 와서 일하는 실행방법'에 맞는 인재를 위해 상하이 호적을 해결해 주고, 특히 첨단기술, 금융등 기타 현대 서비스산업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고급관리인재, 연구개발 인재, 주요기술 핵심요원, 학문의 영역 리더와 푸동발전에 공헌하는 특별인재에게는 호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었다. 또한 고품질 인재의 자녀의 교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제공해 주었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략에는 특별한 인재 양성과 유입정책은 없으며 제주도내 자체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에서 보듯이 푸동특구 인재 정책은 개방성이 크고 우수 외지인력 유입에 적극적인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자체인력 양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폐쇄성이 크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이는 다음의 <표Ⅲ-36>에서 인재양성제도 내용을 상호비교해보면 나타난다.

<표Ⅲ-36> 상하이 푸동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재양성제도 비교

상하이 푸동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인재집결 • 창조적인 인재양성 • post 닥터 • 안거공정 • 녹색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산업인력양성 • 외지인력유인책 전무 • 금융인력이나 전문인력양성 유인책은 없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자체인력 양성

4.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비교

푸동특구 외자도입정책의 성과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전략(정책), 지방정책 및 지도부의 리더십, 지방의 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대폭적 권한 이양이며 다른 하나는 획기적 수준의 자금 및 인프라 지원이다. 지방정부는 외자도입 권한과 푸동경제특구 설치 허가권, 세수 등에서 상하이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상하이 푸동특구의 직접적인 개발자금, 인프라에 대하여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수준으로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및 지도자의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책집행의 자율성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지방 지도부의

리더십은 중앙의 정치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방의 대외경제관련 정책 수립, 집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지역경쟁우위 요건’을 구성하는 해당지방의 교통·생산 및 판로를 위한 배후지, 초기조건등을 포함하는 이 요인은 대외경제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과 지방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환경요인은 외자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에,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리더십은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투자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투자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지역경쟁우위 요건’으로 작용한 환경적 요인의 경우 투자기업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외냐하면 지역의 입지는 원자재 조달 및 제품의 판로(즉, 시장 추구), 물류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50)

<표Ⅲ-37> 지방정부의 대외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⁵¹⁾

요인	성격	내용	비교
중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차원의 전략 권한과 자원을 해당 지역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권한: 외자도입권한, 개발구 설치허가 세수 등 정책 자원: 개발 자금, 인프라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혁·개방 초기에는 의미가 크나 개방체제로 갈수록 의미 축소
지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및 지도자의 정책 성향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성향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화·시장화 될수록 강력한 역할
지역경쟁우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 정책 수립, 집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배후지(공급, 수요) 초기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관의 상호관계에 따라 정책 결정 개방화·시장화 될수록 강력한 역할

출처: 정환우, “중국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전략”: 텐지시(天津市)와 상하이시(上海市)의 비교”, 2006

그런데 상하이 푸둥특구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대

50) 정환우. “중국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전략: 텐지시(天津市)와 상하이시(上海市)의 비교”, 「한국국제정치학회」, pp. 139-141, 2006.

51) 정환우. “중국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전략: 텐지시(天津市)와 상하이시(上海市)의 비교”, 「한국국제정치학회」, p. 141, 2006..

규모 집중투자가 가능했던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전략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을 집중투자하기 곤란한 국가자체의 특성이 있어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제4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

1.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의 근거마련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가 현재와 같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푸동특구 발전에서 보듯이 지역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은 권한뿐 아니라 자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를 되려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⁵²⁾ 자치단체의 개발전략 강화 및 정책주도 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제행정능력 및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현재 국가 지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발가속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 국고 보조금 인상 지원 규정, 공공시설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전무하며,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⁵³⁾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전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법·제도·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52) 김태보(2004)는 "제주도는 21세기 세계 3대 경제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견되는 동북아시아 중심에 입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평가와 과제",--?,p,? 또한 진철훈(2005)은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지리적인 위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제주도의 지정학적 장점은 다른 어떤 경쟁지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제주에서 2시간 이내 비행거리 안에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4개나 됩니다. 인구 500만명을 넘는 도시로 범위를 넓히면 13 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휴양,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후 시장이 열 마나 풍부한가가 가장 중요한데, 제주도는 그 점에서 국제 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갖추었으며 청정 자연환경과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유산도 강점이며, 공항이나 도로, 회의시설, 휴양시설 등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잘 구비된 인프라들이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3) "보조금 인상지원 강행규정 명문화 촉구", 제주투데이(ijeutoday.com) 2005년 11월 07일

필요하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지역의 think tank 역할을 하는 제주발전 연구원이 있으나 제주도정의 여러 현안들을 담당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담할 공식기구가 필요하다.

2. 인프라 확충

인프라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 요소이며 경제에 파급되는 승수 효과⁵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확충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프라는 선행성과 기초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의 기반시설이 완성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확충은 고용율 증가효과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90년대 중국은 SOC확충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제약한 병목현상을 해소하였다. 중국의 기반시설을 확대는 농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류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물류시설은 일반 물류활동 장소나 개념이 아니라 물류조직능력, 물류발전능력과 물류를 통해서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하이 푸둥특구는 기반시설을 고려함에 있어 특히 물류시설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푸둥특구의 인프라확충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푸둥특구의 공항과 항만 등 물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짐에 따라 물류업이 발전하였고 이 물류효율성은 상하이 푸둥특구가 개방거점의 물류중심지가 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공항, 항만, 해저터널과 같은 핵심 SOC 확충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재정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개방거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개방거점으로서 물류중심지의 조건을 현재 국제자유도시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평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현재 교통·물류 등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54)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는 처음 투자액 보다 몇 배의 사회요구와 국민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뜻이다.

서 혜택을 받고 있다. 7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위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국비 증액 사업은 육지부의 고속도로·철도 등 SOC 투자사업에 집중된 반면 제주광역권 프로젝트인 제주항공운송능력 확충(신공항 건설)은 제외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⁵⁵⁾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난국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008년7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재정지출 확대 분야가 대부분 육지부 국도·고속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물류시설의 조기완공에 초점을 두었다.

10조원 가운데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및 지방발전 교통망 건설 등을 위해 4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지방 SOC 확충 사업이 호남·경부고속철도,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충남 행복도시 건설, 지방 산업단지 도로완공 등에 집중되기 때문이다.⁵⁶⁾ 2008년 7월 발표된 국가예산 증액규모는 대구·경북 14개 사업 4443억원, 전북 4437억원인 반면 제주지역에 대한 국비 증액 규모는 구국도 확·포장 200억원과 재해위험정비·하수관거 등 5개사업 333억원에 불과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제주도를 개방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약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충역량을 집중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있어 강력한 정부자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업의 요구(needs)에 맞는 지원책 마련

앞장에서 본바와 같이 상하이 푸둥특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상하이 푸둥특구의 기업 지원책은 단순히 세금감면, 생산 공간을 제공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 활동전체를 이해하고 산업연관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정책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하이

55) “정부 제주도지방 SOC 투자사업혜대” 제민일보, 2008년 11월 6일자

56) “정부 제주도지방 SOC 투자사업혜대” 제민일보, 2008년 11월 6일자

푸동특구에 입지였고 기업의 스스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업지원책은 기업의 산업연관관계나 기업의 생산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지원책의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금까지 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발굴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각 기업의 중점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 교환,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선지원업체에 대한 금리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특히 제주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 업체와 기술 인증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확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 기업의 신규창업, 시설재투자, 기간산업 건설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기여도가 높은 중점 산업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당기업 근로노동자의 정수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상하이 푸동특구에서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은 과학 연구 기구와 첨단 기술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 "녹색통로"를 만들었다. 또한 차별화하게 화물을 수입할 때 "先放行, 后收稅"(선수입, 후징세)를 하여, 특수경우에 따라 해관에 통과를 허가하는 여러 혜택을 있다.

4. 지식 확산을 위한 외부우수 이력 유인책 마련

상하이 정부는 인재자원은 지역경제 가속화 발전의 첫 번째 자원이자, 상하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자원, 도시국제화를 도모하는 첫 번째 자원이라고 하였다. 상하이 정부는 인재양성과 외부인재 유인정책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현재 상하이 정부는 글로벌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금융과 서비스의 개방화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글로벌인재를 상하이 푸동특구에 이전시키기 위해 상하이 정부는 외국의 사회 (생명·재산·권리 등을) 보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

용하였다. 또한 주택 구매 시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끌어오고 중국 내·외부인재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 유인해야만 국제수준의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인재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상하이 푸동특구처럼 포스트닥터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글로벌인재가 이러한 경우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상하이 푸동특구는 post-doctor 제도의 적극지원, 안거공정(安居工程)프로젝트의 실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통도'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에게 의료, 보험, 주택, 자녀교육, 호적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준다. 그리고 상하이 푸동특구는 우수한 인재에게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상하이 푸동특구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상하이 푸동특구에 찾아오는 것이다. 품질이 높은 노동력은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5.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 발굴

제주경제의 제도약과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제주경제를 이끌어왔던 성장 동인이었던 자연 자원, 기후 등의 공급 요인과 지역 수출 등의 수요측 요인들이 더 이상 제주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 동인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주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더 이상 관광산업과 농업이 제주경제의 발전의 추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불황이라기보다는 장기지속형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복합불황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선도 산업이 필요하다. 선도 산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유리하는 점에

서 첨단산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제주경제의 현재 여건으로는 실현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이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로서는 우선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산업의 선도 산업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관광관련 선도프로젝트의 집중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복합 관광단지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친시장적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전략

1.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직 마련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라서 지원결정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정치 체질이 달라서 중앙정부가 다른 지자체를 제외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게만 대폭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주도자체에서 더 큰 부담을 진 경우가 많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렵다. 다른 지자체에게 제주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문적 조직, 연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조직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하게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지만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지원의 근거 마련에 몰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이를 위한 전문 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잠재력과 논리를 개발하고 해외시장에서 국제자유도시인지도 등을 조사 하여 중앙정부에게 명확하게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2. SOC확충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항만의 확충이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지역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공항·항만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인프라 확충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제주공항 확장 및 국제적 규모의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교통 여건을 개선토록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의 자동화·급속화·대량화·광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 도시와의 자동통신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첨단 정보화 도시의 기반을 조성토록 한다. 동북아 경제권내 주요 도시 및 관광지

와의 항공선 및 해운 운송망 구축이 필요하다.

3. 기업유치전략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대, 관광휴양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 경쟁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과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과 비교하여서도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에 기반을 둔 국제자유도시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투자환경인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쟁지보다 우월한 투자환경 창출과 투자유치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 조달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투자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재산매각, 규제완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데, 국내외의 각 지역과 경쟁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한다.

둘째, 투자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중문관광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쇼핑아울렛, 휴양형 주권단지, 생태신화역사공원 등과 주요 관광단지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도로·상하수도·전력·통신 등의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투자기본계획을 중·단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한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기업과 접촉이 용이한 해외조

직, 외교통상부, KOTRA 등 해외조직-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사업을 투자진흥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한국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대한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외국인기업의 투자분야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시장조사 자료 제공 등을 행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 푸동특구처럼 기업의 산업연관 기업도 기업 유치시 함께 고려한다. 즉 관련한 기업까지 혜택정책을 마련한다. 푸동특구의 정책은 한 기업만 푸동특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트기업들이 함께 푸동특구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도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보았듯이 상하이시 푸동지구정부는 외국투자자가 푸동특구에 와서 편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一門受理、一口收費”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이전 기업에 관련된 행정처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관련 행정부서는 한 빌딩에 근무하게 참으로써 외자유치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세계적 물류, 비즈니스, 등 중심도시를 되기 위해 이러한 행정서비스와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인력유입정책의 마련

상하이 푸동특구는 인재유입정책을 실행하여 중국내지인재 뿐만 아니라 외부인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외부인재 유입에 따라 푸동특구에 수준 높은 기술과 첨단 지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내부인재 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내·외부 인재 유입은 상하이가 세계도시로 변모하는데에 큰 기여요인이 되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주로 제주지역내 대학으로 인재양성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외부인재를 끌어오는 개방적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 인재양성에 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물류 등 뿐만 아니라 인력유입에 개방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5.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광역경제권정책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도 산업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다.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그로부터 창출된 재원으로 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제주관광을 고급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4+1 핵심 산업중의 하나인 청정농축사업은 고급화된 제주관광의 소비자가 제주에 왔다가 돌아갈 때 구매하게 되는 주요관광제품으로 역할을 하고, 관광기념품제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관광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여 제주지역의 고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역시 4+1의 핵심 산업인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의 경제발전을 통해 21세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개방거점으로써 동북아 중심지를 성공적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즉, 상하이 푸동특구의 개발 정책과 개발과정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을 재검토하여,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어떤 전략을 도모해야하는지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개방거점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에 세계 개방거점의 성공사례에 대한 간단하게 분석했다. 또한 세계에서 개방거점으로서 발전을 꾀한 중국 상하이 푸동특구에 인센티브, 중앙정부의 지원, 인재양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현황에 대한 분석하고 상하이 푸동특구와 비교하였다. 여기서 상하이 푸동특구가 개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특화시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동북아 중심지를 추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의 근거마련해야 한다. 잠재력과 논리를 개발하고 해외시장에서 국제자유도시인지도 등을 조사 하여 중앙정부에게 명확하게 지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즉, 동북아 경제권내주요 도시 및 관광지와의 항공선 및 해운 운송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유치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관련된 기업들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첨단기술기업에게 차별화 정책을 부여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인재유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품질 높은 노동력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 발전에 필수조건이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우한 산업구조조정과 생물산업, 환경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우망 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태보.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제주경제의 대응과제”,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 2004.
- 김태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의 평가와 과제”, 2004.
- 金南亨.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내·외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동욱.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조 개선과 인프라 구축」,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07.
- 정해용. “중국 상하이(上海)의 도시발전 전략과 세계도시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
- 정환우. “중국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전략: 텐진시(天津市)와 상하이시(上海市)의 비교”, 한국무역협회, 2006.
- 박진석,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광국·이세경. “상하이 푸둥지구의 개발벤처마킹을 통한 부산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연구”, 「아시아연구」, 2004.
- 금정문. “광양만권 經濟自由區域의 開發 計劃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호남대학교 복사행정대학원, 불부산학과 부동산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영진.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중국내 상반된 의견”, 국민대학교, 국제지역학부, 2001.
- 이상식·박기성,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2003.
- 강윤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003.
- 박정진. “외국이 투자유치전략-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주현.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07.
- 안동도·류재원,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03-04, 2003
- 박인성. “상하이시의 거주구 및 신도시 개발정책 고찰”, 「국토연구원」, 2001.
- 오승렬.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統一問題研究, 1995.
- 박종실·우종균.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박인성. “상하이 푸둥 신개발구 개방 5년의 경과와 의미”. 1995.
- 이환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호병·이형우.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간 주민의 의식차이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6.
- 이광국·이세경. “상하이 푸둥지구의 개발벤처마킹을 통한 부산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연구”, 「아시아연구」, 2006.
- 백종실·우종균.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안동도·류재원.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03-04, 2003.
- 이상식·박기성.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2003.
- 박정진. “외국이 투자유치전략-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금정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복사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초현평(肖現平). “對浦東經濟增長與發展之認識”, 푸동신구統計局, 1998.
- 초금성(肖金成). “빈하이 신구(濱海新區)與 푸동신구(浦東新區)의 비교분석”, 국가개발위원회 토지개발과 지역경제연구소, 2007.
- 장신광(張晨光)·손점방점芳(孫占芳). “빈하이 지구(濱海地區)與 푸동신구(浦東新區)의 비교(比較)분석(分析)”, 현대재경(現代財經), 2008.
- 림영육(林英陸)·도일도(陶一桃)·원역명(袁易明). “선전특구(深圳特區)與上海浦東新區의 비교分析”, 중국특구경제발전(中國特區經濟發展)比較研討會.
-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경제특구”, 삼성연세연구소
정부 제주도지방 SOC 투자사업홀대” 제민일보, 2008년 11월
“보조금 인상지원 강행규정 명문화 추구” 제주투데이(www.ijejutoday.com) 2005년 11월

